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3 7/8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kdfa@chollan.net
홈페이지: www.kdf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바람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94호 2003년 7/8월호

창간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물론이 황미혜, 김희정/펴낸날 2003년 7월 15일

2 권두언	사랑은 행동하는 것	이윤경
4 보육정책	지역보육조례 제정운동	이윤경
10 기획시리즈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3)	심선경
17 현장교육 1	나는 평화를 꿈꿔요.	김현정
31 현장교육 2	교사들이 준비하여 공연하는 인형극을 올리며...	김수중
32 현장소식 1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으?	박인해
33 현장소식 2	광주전남보육교사회의 5월 달려가기	박화명
36 현장소식 3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다녀와서...	최현희
38 현장소식 4	부산보육교사회 어린이의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달	김명선
42 새내기인사	조직간사로 근무를 시작하며...	임정수
44 좋은 그림책소개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김지영
46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해맑은세상 아이들의 이야기	서형선
47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 진정한 팀워크란...	이경녀
49 육아일기	태중일기(2) 민방한 서울생활의 시작, 그래도.....	주로미
53 세상읽기	내 아홉 아시는 당신께	임남희
55 목소리	노동부를 다녀와서 - 독과 실 -	임정수
57 상담실 Q&A	고용보험에 꼭 들어가 하나요?	편집부
59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바람을 가르치는 재미, 인라인 스케이트	김취경
61 알림란		편집부
66 보육개황		편집부
70 소식과 소식		편집부
78 편집부에서		편집부

사랑은 행동하는 것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루 해가 다르게 부쩍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돌보는 그 아이들만큼 나도 성장하고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처음 보육교사로 취업할 때 가지고 있었던 희망, 설렘, 기대, 열정이 긴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지쳐가면서 어느새 해서는 안 되는 규칙만 한 바구니 가지고 있는 경직된 교사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은 지 반성해봅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소비성 광고와, 흠 한 뼉 없이 주변을 풍풍 둘러싸는 콘크리트,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그 짧은 거리조차 안심하고 걸어올 수 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그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활하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싸우고 뛰어다니고 편식하고 흔히 보육교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피폐한 세상에 대해 나름대로 살아있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시간동안에만 생겼다 사라지는 직업적 감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아이들이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민과 실천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지만 정작 보육교사의 생활에서 그런 실천을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험해, 하지만, 안 돼, 그만두지 못하겠니?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육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보육교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봅니다. 그런 보육현장을 만들어갈 힘을 얻기 위해 보육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생각해봅니다.

매일 아침 어린이집을 들어오는 아이들을 밝게 웃으며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내일의 일 할 힘을 위해 충분히 쉬 수 있는,
부모와 즐겁게 협력하고 보육교사가 보육활동의 주체가 되어 생활하는,
보육교사와 부모와 아이들과 시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보육현장을 꿈꿔 봅니다.

이번 여름, 지부별 수련회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것입니다.

공유경제의 조류보이지

조류보이지는 무엇인가?

조류보이지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보육교사들과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작이 보육운동의 발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원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사랑이 단지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더 큰 사랑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가며

1995년 지방선거¹⁾를 통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지방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살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육은 지역사회의 영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 년 간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 관리나 이용자인 부모의 참여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²⁾이어서 이를 담아내기 위한 조례제정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2년에는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가 지역단체들과 함께 인천시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여 조례제정을 하였고, 금년에는 광주, 부산, 수원에서 한국보육교사회 지부들이 지역보육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많은 지역에서 보육조례제정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보육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조례제정운동을 통한 지역보육의 발전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는 그 발의자가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 주민, 지방의회의원으로 다양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의 공포를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만 미친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00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00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2. 보육조례란 ·

지자체의 보육행정에 대해 규정한 자치법. 보육에 대한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의 테두리를 크게 넘을 수는 없으나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지역에서 보육행정을 원활하게 하며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1952년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로 사용하게 되었던 부산에서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때 선출되었던 단체장은 시장, 읍장, 면장 등 기초 단위의 지방 행정 구역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의원들도 각급 기초 행정 단위별로 선출하였다. 이후, 지방 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시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가 해산되어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 후 제 5공화국까지 안보와 재정 여건상 지방 자치가 연기되어 왔고, 제 6공화국에서는 지방 의회만 구성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 6·27 지방 선거로 지방 자치단체장까지 주민 직선에 따라 선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을 확보해 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조례제정운동의 필요성

- 1)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참여가 가능하다 : 지방자치는 지나친 중앙집권이 가져오는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문화의 창조와 지방의 창의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각 지방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주민참여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기술화된 직업적 관료조직에 의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과 민주성의 상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조례제정은 주민의 청구권, 제정권의 권리를 통해 자기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또한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조례제정운동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 2) 관련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가져온다. : 부천시의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사업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와 같이 조례제정은 중앙정부의 법률과는 달리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입법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육시설의 설치나 위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연줄이나 압력에 의한 위탁제 선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동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의 명시, 위탁선정위원의 자격명시, 위원간 비율, 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3) 조례제정과정을 통해 공동체 인식의 확대가 가능하다. : 현대사회의 병폐 중 하나로 이기심과 개인주의화를 들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친밀한 공동체 의식을 기대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역살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활상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그 조례가 자신의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을 때 더 그러하다. 다만 '님비'라는 말로 이야기되는 지역이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참된 공동체성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 4) 지역단체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 도로교통, 주차문제, 환경, 보육과 같이 지역사회 대다수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걸린 문제를 이슈화하여 조례제정운동을 벌일 경우 관련한 운동단체가 있더라도 단독으로 조례제정운동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들에게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홍보와 교육,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려면 여러 단체의 힘과 지혜가 모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단체를 알리고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지역단체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4. 보육조례제정의 필요성

보육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보육제도가 한 사회의 시스템에 얼마나 자리잡고 있느냐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나 지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육제도는 그 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보육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의해 시행되어 왔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보육욕구의 차이(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이나 상가지역에서는 야간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계절 보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앙정부가 전국규모로 하기 힘든 사업의 경우(소규모 시설 취사원 지원 등) 조례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육은 부모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보육시설 운영이나 지역보육정책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5.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제언

조례제정은 지역의 보육사업을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지역의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조례에는 운영, 관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아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의 방법이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로 제정하는 경우, 그리고 주민발의로 제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주민발의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끌어내야 된다는 어려움과 단체장이나 의원발의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보육문제를 홍보하고 발의과정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조례 내용에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보다 주민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주민발의를 위한 필요 정족수와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총 수의 2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도록 되어있다.

의원발의나 단체장 발의의 경우에도 조례제정 과정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정뿐 만 아니라 이미 제정된 조례의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천시의 경우 처음 보육조례는 단체장 발의로 제정되었으나 주민들이 개정을 요구하면서 주민발의의 형태로 개정을 이루어 냈다.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시민단체가 보육조례개정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서명을 받은 후 발의를 추진하였다.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의 문구에 대한 조정이 있었지만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일부 수정부분도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와 사전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과천시 보육조례의 특징은 무엇보다 참여와 공개를 통한 보육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 특

히 시의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시설장이외에도 보육교사와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위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위탁과 관련된 잡음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방과후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의 장기적인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두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개정된 과천시의 보육조례가 100퍼센트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며 조례개정만으로 산적한 보육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보육조례가 행정업무의 효율성 위주로 만들어졌다면 과천시의 개정 보육조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의 중요성을 드러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주민발의라는 힘을 통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6. 지역공동체와 보육

보육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아동의 양육이 가정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과제가 되면서 저출산 현상의 지속이라는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궁극적으로 사회생산력의 감소와 복지비용의 증가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차단시킨다. 사람들은, 이제 가정만으로는 양육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에 부족하고 무언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느낀다. 양육문제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지역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 아동은 늘 누군가의 시선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자라서는 마을 공동체가 아이의 사회적 발달과 규범, 도덕에 대한 합의된 사항들을 가르쳐주고 동네라는 지역적 울타리로 아동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개별 가정에 전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지우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육아에 대한 정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조언을 얻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수가 1-2명 정도여서 또래나 형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물질적 풍요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 - 불안한 울타리, 뒤섞인 정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위축과 그것을 만회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과도한 보상 - 은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보육시설은 각 아동이 처한 경제적, 환경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통해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인식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보육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 양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육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양성평등한 육아문화와 비용과 제도, 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야 할 때이다.

보육조례의 제정은 지역공동체가 지역아동의 보육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시발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

※ 참고자료

《주민발의를 통한 보육조례제정 과정 - '과천시보육조례개정운동백서'에서 발췌》

- 2001. 9. 20. 보육조례개정운동 간담회(시민회관 제1강좌실)
- 2001. 10. 6. [수임인]단 발기인대회(중앙공원 야외무대)
- 2001. 10. 8 - 16. 수임인 신청자 모집
- 2001. 10. 16. 실무회의 개최(부림문화의 집) => 과천시보육조례개정본부 명칭 확정
- 2001. 10. 17. 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과천시 민원실)
- 2001. 10. 18.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 2001. 10. 23. 1차 대표자 서명요청권한 위임(수임인) 신고서 제출 => 130명 접수
- 2001. 10. 23. 1차 수임인 신고증 발급
- 2001. 10. 26. 실무회의 개최(부림문화의 집)
- 2001. 11. 4.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및 서명운동 시작
- 2001. 12. 6. 실무회의 개최(부림문화의 집)
- 2001. 11 - 12. 17. 수임인 교육 개최 및 서명운동 전개
- 2001. 12. 19. 청구인명부 제출(총 1656명)
- 2002. 1. 31. 보육조례개정운동 중간 평가 모임(부림문화의 집)
- 2002. 2. 5. 과천시 사회복지과 공무원 간담회 개최
- 2002. 3. 12. 시의원 간담회 개최
- 2002. 3. 13. 주민발의 조례안 의회 상정
- 2002. 3. 14. 주민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2002. 4. 12. 보육조례 축하연 개최(한백교회)

《현재 진행 중인 보육조례제정운동》

▲ 부산지역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 중심으로)

- 5월 16일 : 〈부산시보육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 22명참가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준비모임 결성과 조례제정 추진실행을 위한 집행회의 정례회 결정
- 6월 3일 : 부산시보육조례제정준비모임 1차 실행회의(5개 주요단체 참여)
조례제정의 방식은 주민발의(시민발의)로 하기로 결정
인터넷 카페 개설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운동 / <http://cafe.daum.net/bsbx06>〉
- 6월 30일 : 수임인단 발기인대회
- 이후 일정
7월: 조례청구안 부산시 제출(민원실) 수임인단 계속 모집/
7월 중순: 조례제정운동본부 발대식
8월: 집중 서명시작
9월: 집중서명 /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10월: 집중서명 / 부산시 관련공무원과 간담회 / 부산시시의원들과 간담회

11월: 주민청구서명 취합하여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 광주지역 (한국보육교사회 광주지부 중심으로)

- 4, 5월 : 조례제정의 필요성, 준비항목, 목표 설정 등에 대한 학습, 토론 진행, 조례안 내용 준비, 연대단체 구성방안 등
- 5, 6월 : 시민요구도 조사 및 분석
- 이후 일정
7, 8월: 범연대단체 구성, 시민 선전전
9, 10월: 선전전, 시장면담, 공청회 등
11, 12월: 의회 상정 및 제정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3)

심선경 · 명예회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벌써 6월의 끝, 2003년도 반을 넘기고 무더운 여름으로 가고 있다. 교사들이 더 지치기 쉬운 여름의 후덥지근함. 우리가 세 번째 모임을 가진 날도 비가 내리면서 여름의 더위를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 사무실에 있으려니 참석자들의 전화, 조금 늦을 것 같다는, 그래도 올 사람들은 9시가 넘어서도 꼭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그런 모습들이 문득 고마웠다.

2003년 6월 23일 월요일

참석: 진행자와 백호, 우주, 까치소리, 생쥐

세 번째 모임에서는 교사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다. 교사들 본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물리적 환경, 인적환경, 제도적 환경으로 나누어 각자 정리해 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주) 우리 어린이집은 단독건물 1층 영아반에서 오전 보육. 1층이라서 좋고 마당이 있어요. 텃밭이 있고 나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1층에서 보육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데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순수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진행자) 마당이 있는 환경이 좋은가 봐요?

우주) 예. 난 원장업무 보면서 보조로 들어가지요. 지금은 2, 3세 아이들을 담당하는데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자유로움 행복감... 그 아이가 얼굴도 예쁘지만 생활력도 보이는... 그 아이만 보면 행복해져요. 주로 하는 일이 보조교사 업무와 이유식 준비, 점심 간식 청소하는 것인데 난 이런 일들이 좋아요. 오후에는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주로 하는 게 전화하고 받는 것, 컴퓨터 작업으로 회의 준비하고... 그 일은 짜증나고 재미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진행자) 물리적 환경에서 마당이 있다는 게 선생님에게 좋은 것으로 작용하는 거죠?

우주) 저한테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마당있는 집을 준비했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모래놀이하고... 실내에서 나가서 놀 수 있는 공간. 비 눈을 맞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거기에 고추나 토마토 같은 식물도 심고.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과 비교해보면 새로운 아이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있는데... 신발 신고 나가서 놀자 그렇게 많이 하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잊어버리고... 좋아해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너무 좋다. 나 개인적으로도 좋아요.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시설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주가 이야기 한 것처럼 어린이집에 '마당'은 교사, 아동 모두에게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교실의 면적이 너무 좁고, 식사공간, 교실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것, 교재교구의 빈약, 화장실 문 등 위험한 환경도 지적되었다. 마당과 같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하루종일을 생활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여진다.

진행자) 인적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지요.

인적환경이라 한다면, 아동, 교사, 원감, 원장, 지모, 주방아주머니, 지역주민, 구청관계자 등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우주) 아무래도 교사들과의 부딪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교사들은 회의할 때나 일할 때, 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나 모습을 볼 때 좀 실망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행동이나 보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자) 교사에게는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는지요?

우주) 내가 받은 것 보다 더 많이 주지 않았나. 무슨 '말' 이겠지요? 긍정적으로 힘을 주기보다는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로 일하는 태도나, 주로 상처를 주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돌아서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 일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큰 것 같은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진행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나요? 회의를 하나요?

우주)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런 태도가 나오면 내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표를 맞고 있어서 일을 할 때 말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상처를 주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진행자) 교사회의는 정해놓고 하나요?

우주) 한 달에 두 번. 한번은 교육회의로 교사교육 아동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한번은 운영교사회의를 하지요. 일주일에 한번은 영아반 유아반 각 반회의를 하고... 반회의 때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백호) 근데 교사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주제가 있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지만 억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원에서 주로 부딪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교사 재교육에 관한 거예요. 원 상황이나 담당연령에 따라 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애담당처럼, 근데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재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교사들 사이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감정적이 되기도 해요.

진행자) 그런데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진짜 악을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우주) 우리는 교사회의에서 그런 원칙을 정해요. 교육을 같이 결정하지요. 프로그램을 놓고..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는 그렇게 잘 안되기도 해요. 개인에 따라 받고 싶은 교육이 있고, 또 나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강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골고루 원하는 교육을 가게 하는 것은 맞는데 좀 서로 배려하고 이런 부분은 전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시간에 맞고 그런 사람이 가는데 근데 그게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물리죠.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된다. 교육을 가게 되면 초출이나 그런걸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교사들은 불편하죠. 토요일 같은 경우에 교육 받으면 토요일 오후에는 서로가 근무하고 싶지 않잖아요. 개인은 받고 싶은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종간 한데...

백호) 우리는 재교육의 내용이 다 오픈 되어있는데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가고 골치 아프다 싶은 거는...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야해서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재교육을 많이 가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우주) 교육의 성격을 분류해 놓으면.. 그런 교육은 원장이나 주임이 가고.. 다른 내용은 교사가 가고.

까치) 우리는 업무분담 그대로 재교육도 가요. 소방교육이 나오면 소방담당이 가고.. 그렇게 가고. 특별히 재교육이라는 미술교육 언어교육 같은 종류는 전혀 없어요.

진행자) 그게 교사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의 교사재교육이나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합의되고 체계화되어있는가 하는 문제일수도 있어요.

백호) 예를 들면 경력에 따라 받아야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한 세 명이 승급교육 티어가 있을 경우 한 명 밖에 나갈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약속이 되어있다면 순차적으로 먼저 들어온 선생님이 들어가고.. 이런 건 그렇게 되어있다. 나머지 삼성이나 정보센터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 등이 있는데 그걸 교사가 업무분담을 해서 맡고 있는데

일정표를 일부 교사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전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참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야기하거나...

까치) 취업한지 3년째인데 한번도 교사 교육은 참석해 보지 못했어요. 신규자교육 보수교육 두 개밖에 없어요.

백호) 보육교사회에서 하는 교육도 많은데 다른 교사들은 별로 참석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원인 교사들이 참석하면 그 사람은 교육을 많이 간 게 되지요.

우주) 우리 원에서는 보육교사회 교육은 100% 지원하고, 다른 교육은 연 1인당 10만원까지 쓰게 정하고, 교육이 있는 건 교사회의때 같이 이야기해서 갈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3개월 6개월 1년 등의 과정이 있을 경우 이 경우 여러 사람이 받고 싶은데, 두 세 명이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하게 되죠.

진행자) 자연스럽게 교사 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 교육, 어린이집의 회의체계나 의견수렴 구조 등 원의 구조적 문제가 나온 것 같네요.

백호) 우리는 재교육비에 대한 규정은 잘 모르고, 원장님이 가끔 50% 대줄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해요.

교사 재교육은 원장이 시혜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권리이고, 이 또한 교사들에게 재충전과 능력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교사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교사 재교육의 참석과 결정 과정은 사전에 어린이집의 직원 모두가 합의한 규칙하에서 참석하는 공식적인 교사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어린이집에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이 문서화, 공식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이런 것을 합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도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나온 교사 재교육, 교사들의 활동에 관한 문서, 의사소통체계 등은 모두가 교사를 둘러싼 주요한 제도적 환경일 것이다.

진행자) 그럼 이제 교사 회의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해보지요.

백호) 직년엔 원장님이 하시고 하면 그냥 수시로 했어요. 올해부터는 월례회의로 정해놓고 하는 데 그 원칙이 잘 안 지켜져요. 원장님이 너무 바빠서.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원장님에게 다른 일이 생기면 그 달 월례회는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자) 그러면 원장과 의사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백호) 원장님이 주임을 통해 말을 하면 주임이 교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공지사항일 수도 있고, 또 급하게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임이 급방 또 올라가서 공지에 주어야 하지요.

진행자) 공식적 교사회는 없다고 봐야 하나요?

백호) 교사회의는 원장이 주관이 되고 정해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까치) 우리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원칙은 한 달에 한번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날은 원장님이 정하는 날. 항상 원장님이 주임과 먼저 이야기하고 회의시간에 원장님이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면서 주임과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데, 주로 그 달의 일정과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으로 끝나죠.

우주) 그럼 교사들의 의견은 원장에게 어떻게 전달되나요?

까치소리) 교사 의견은 주임과 이야기하는 시간에 하는데, 요즘은 거의 주임과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원장님하고 직접 이야기해요. 예전엔 교사들과 원장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주임이 문제가 많아 지금은.. 주임이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항상 자기는 빠지고 고지질 하는 수준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백호) 주임은 역할이 뭔지 고민이 되요? 교사와 원장의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고. 원장과 교사의 전달?원 행사 체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전에 주임이 먼저 회의 서식을 (전달평가, 반별평가, 안전사고, 교사생일, 교육안내, 다음달 할 일, 공지사항 등) 작성해서 회의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주고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담당선생님이 하죠. 미리 회의 전에 전체에 나누어주고 미리 생각해 오라고 해요.

올해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유아반 교사만 모아서 회의하기도 하고.

까치) 우리는 주임이 혼자 알고 넘어가요. 왜 얘기 안해주냐고 하면 '내가 얘기 안 했어?' 그러고 넘어가죠. 매번. 친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주고.

백호) 교사회의에서 연간 교육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진행자) 교사회의때 정식으로 한번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백호) 다른 동료교사와 함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원장님과 맞서면 혼자 곤란해지기도 하지요. 뜻에 맞는 교사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같이 건의해야지요. 그래야 원장이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고려해 보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까치)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임이 협조적이지 아니니까...

진행자) 원장에게 한 번이라고 직접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까치) 했는데.. 휴가 빼서 갔다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휴가 빼고 갔다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휴가 빼서 갈 생각이 없어요.

백호) 예전에 있던 시설도 교육이 열려있지는 않았지만 휴가를 빼서 갔었어요.

진행자) 규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때는 휴가를 반납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들간에 합의된 규정이 있는가가 문제이지.

의사소통체계나 교사회의체계가 있지만 그런데 별로 없고 합의된 원칙이 없으면서 재교육뿐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될 것인데..

까치) 우리가 원칙으로 합의된 것은 출퇴근시간밖에 없어요. 9명의 교사가 3:3:3으로 나누어서 8시간 반 정도 근무한다는 것.

진행자) 어떤 어린이집은 교사들은 교육회의만 하고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주) 교사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사회의에서 무슨 내용까지를 다룰 것인지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통은 보고하고 받고.. 교사의견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까치) 우리는 그냥 원장님이 읽어주는 걸 듣는 것이 다예요. 교사들은 그냥 그렇구나.. 회의하는 것도 싫어해요.

우주) 우리도 교육회의에서 진행사항만 이야기하고 서로의 교육관이나 그런걸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요.

까치) 지금은 한 달에 한번 하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냥 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만, 행사가 많으면 일주일에 세 번이기도 하고 별일이 없으면 계속 안 하고, 직년 말부터 주임과 교사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원장님이 한 달에 한번 회의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백호) 까치의 입장에서 보면 주임도 인적 환경으로 매우 중요하네요.

진행자) 규모가 커지면 주임이 원장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이 아무리 마인드가 좋아도 밑에서 움직이는 주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주) 오히려 더 어려워요. 교사를 감싸안기도 하고 교사의견을 모아서 대표하는 역할도 있고, 교사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역할.

백호) 주임은 어떻게 뽑나요?

까치)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원장님이 경력 높은 사람 손으로 지명해요.

내가 생각하는 주임의 역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교사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곳의 주임은 어떻게든 원장님한테 이쁨만 받으려고 하고, 호봉이 높은 사람은 고용불안이 있다고 들 하는데 우리 원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해요.

진행자) 개인적 성향일수도 있고, 어린이집 분위기가 원장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지요.

백호) 소신 있는 주임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교사들간의 화식은 하나요?

까치) 원장님이 하자는 때 1년에 4번 정도 하지요.

진행자) 동료들끼리는..

까치) 끼리끼리 나가지요. 원장님이 교사들 모이는 걸 싫어해요.

진행자) '원장은 교사들끼리 모이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까치) 아침 일찍 다 정리해 놓고 아이들 오기 전에 교사들끼리 차 한 잔 마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랬는데 원장님 차가 보이니까 교사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원장님이 교사들이 모여있는걸 싫어한다고 하더라구요.

진행자) 근무 전이라도 교사들은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사들이 한군데 모여서 있으면 아직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에 오면 이미 근무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까치) 난 좀 생각이 달라요. 아침에 출근해서 티타임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백호) 조출 교사가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한다면 다른 교사들이 티타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픈된 공간에서 교사들이 모여있으면 안 좋게 보이기도 하겠지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지난 번 시간에 나온 교사 역할의 장애요인으로 잡다한 업무와 업무 과중, 원장과의 갈등, 주임간의 갈등 등.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임이 교사들의 주요한 인적환경에 하나임을 새롭게 인식했고, 의사소통체계의 중요성, 어린이집 모든 활동, 교사 활동에 대한 공식화 등이 모두 교사들의 활동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깨달았다. 물론 우리들은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그들의 일과 나와 상호작용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그저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 원장에 대한 불만으로만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들이 왜 있었는지, 회의 원장의 역할 공식화된 체계나 합의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서 주임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가장 주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느끼는 것도 나요,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주체도 바로 나라는 것이다. 환경은 외부에 의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매일 매일 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변화시

킨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흘러 개울가를 파면, 파진 개울가로 인하여 물줄기의 방향이 바뀔 수 있듯이...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자신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그려보았다. 교사 자신을 가운데 두고,

<그림 그릴 이야기>

까치) 긍정적 영향은 동료교사인 친구, 아이들, 이 길을 계속 걷고 싶은 나의 희망.
부정적인 것은 주임교사와의 관계 악화, 실내환경이 협소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교구하나 놓을 수가 없는 거. 교수방법도 매우 정형화된 방법으로 원장님이 지시하고, 참, 교사재교육이 없는 것도..

백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아이들.. 비교를 해보았을 때 10여 년 전과 그때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한꺼번에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길을 성취해야겠다. 그리고 오기로라도 극복하고 싶다.
부정적인 것은 사람은 안 미워하지만, 그러나 일하는 방식에 원칙이 없다는 거. 원장님이 좀.. 절대적으로 원 운영에 차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거. 원칙과 소신이 없고 무질서한 거.

환경은 어린이집을 이렇게 밖에 지을 수 없을까.. 어린이집인데...

우주) 아이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간. 교사들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재도적 측면들.. 원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려는 취지로 출발했는데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악화되었고 영아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보육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육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공동육아보다는 낫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영아전담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그런 거 부정도 긍정도 아닌 희망적인 거죠.

참 놀랍고 좋았다. 참석 교사 모두가 긍정적인 환경으로 꼽은 것은 모두가 아이들과 미래에 대한 희망, 교사로서의 나의 일에 대한 희망이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다음 모임에서는 어린이집 환경에서 자모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자모 대하기, 자모회, 상담 등. 교사들이 생각하는 어린이집 자모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설문으로 만들어 다른 교사들의 의견을 보육교사 회 홈페이지를 통해 묻기로 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근무 없는 토요일에 만나 좀 여유있게 모임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 같이 맛있는 밥도 먹어야지.

나는 평화를 꿈꿉니다.

"선생님! 이라크에서 전쟁 났어요." 몇 달 전부터 유아들은 아침마다 이라크의 전쟁 모습에 관하여 이야기하곤 한다. 어떤 날은 "탱크랑 제트기랑 진짜 멋져요." 하며 전쟁의 모습에 동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선생님! 아이들이 많이 다쳤어요. 아프겠어요." 하며 전쟁의 다른 면들을 보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아들은 전쟁에 대한 동경보다는 전쟁의 아픈 모습들을 더 많이 보고 슬퍼한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모습은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들이었고 장난감 총과 칼 따위의 놀이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자주 아이들이 교실에서 혹은 집과 놀이터에서 또래들과 놀이 할 때 싸움이나 갈등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흔히 접한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싸우지마." "싸우는 건 나쁜 거야." 하면서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곤 한다. 하지만 교사 혹은 부모의 중재의 말 속에는 싸움이 왜 나쁜 것인지, 왜 하면 안 되는지 같은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없다. 그로 인해 유아들은 어른들에게 꾸중이 두려워서 싸움을 멈추는 것뿐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 대해 싸움이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며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들이, 내가 싸우지 않는 것이 어른들의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싸우지 않는 것과 평화로운 세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좀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상황을 해결했을 것이고 싸우는 수도 줄었을 것이다. 평화교육은 전쟁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이뤄지거나 일정기간의 교육만으로는 형성되기 힘들다. 평화는 생활 속에서 지켜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와 기술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유아기에 적합한 평화교육은 어떠한 것일까? 또 유아기에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에서 본원의 평화교육은 시작되었다. 본원에서는 만 5세 유아들과 4주동안 평화교육을 실시하였다.

1. 평화교육의 개념

평화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평화의 의미를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하였으나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적극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J. Galtung은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초월하여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과 분쟁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 Bey와 Turner(1995) 평화는 사람이 말하고, 듣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에서 조화로움을 격려하는 행동이며, 상처를 주며, 해를 가하고 서로 파괴하는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평화란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국가간·집단간·개인간의 이해, 신뢰, 상호 우호와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물질적, 경제적 평화와 자연 환경에 대한 합리적 판단까지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평화교육프로그램에서는 평화를 집단간·개인간의 이해, 신뢰, 상호 우호와 협력 등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평화교육이란 무엇인가요?

평화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았을 때 평화교육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사는가라는 의식화 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공격성이나 배타성,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와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을 말한다.

평화교육이란 '평화에 관한 교육'과 '평화를 위한 교육'이며, '평화애로의 교육'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평화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신념을 길러주며 더 나아가서는 평화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평화교육자들은 인간의 공격성이나 적대적,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경쟁적이나 협동적이나의 태도는 아주 어릴 때 형성되며 전쟁이나 폭력을 경험한 유아들은 문제해결 방법으로서의 폭력에 긍정적이며 폭력 이외의 해결 전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인류의 평화는 유아에게 평화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줄 때부터 가능하다고 한 몬테소리의 말처럼 평화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제부터라도 유아교육기관에서 평화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행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준비 및 계획 과정

■ 자료수집

- 관련 연구 조사
- 평화에 대한 도서 자료 인터넷 자료 조사
- 관련 동화 및 비디오 조사

■ 아이들의 평화 및 전쟁에 대한 개념 수준 분석

- 전쟁에 대한 개념 인식 수준
- 평화에 대한 개념 인식 수준
- 전쟁 놀이에 대한 선호도
- 문제 상황시 해결 전략 수준

■ 프로그램 계획하기

- 주제명 조직
- 활동 계획
- 일일 수업계획안 작성
- 답사지 선정 및 예약

■ 교수매체 준비 및 제작

- 동화 자료 분석 및 재구성
- 동화 자료 제작 및 활동 교재 교구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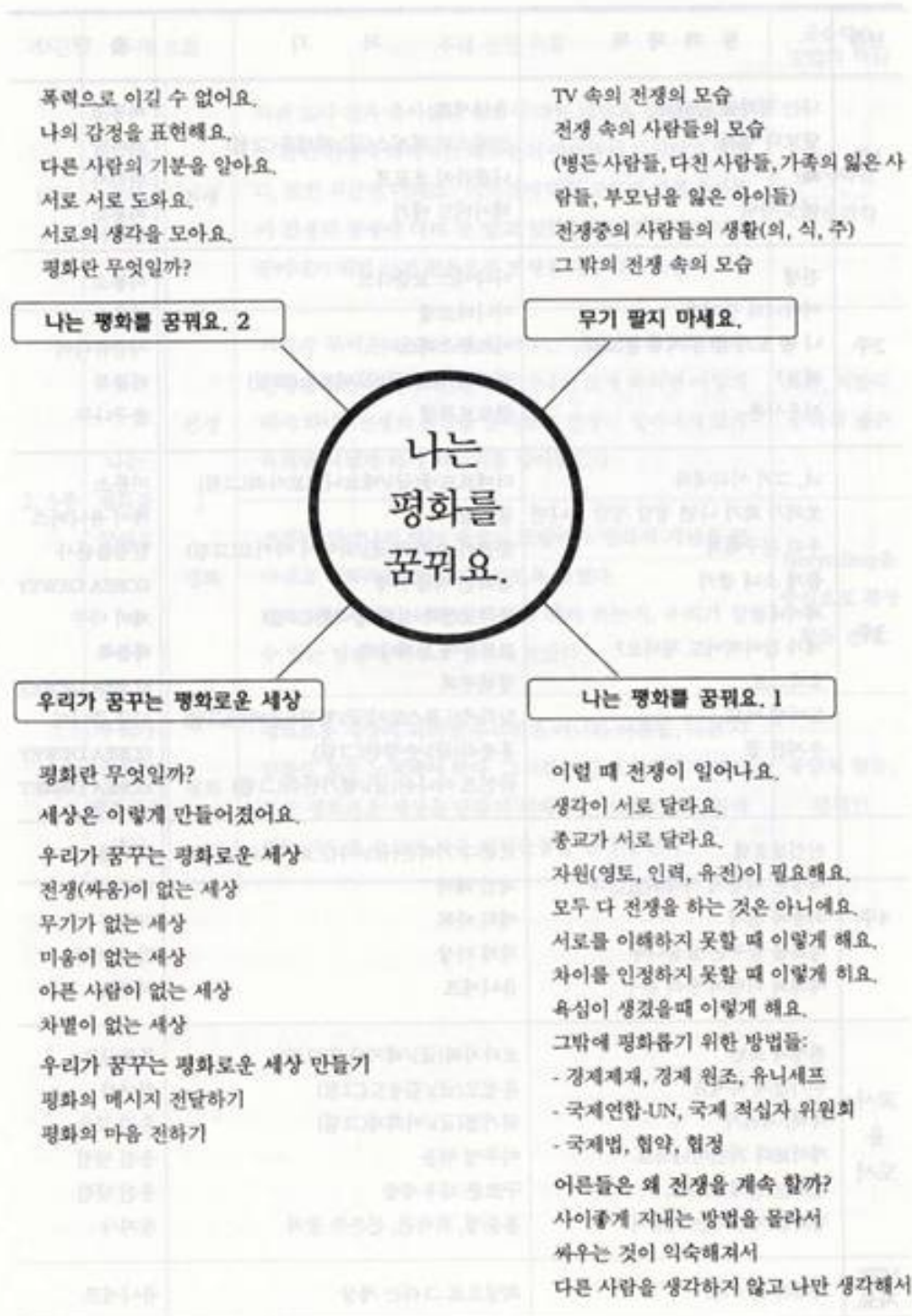
3. 주제 선정 과 전개 과정

기 간	주제 흐름	주제 선정 이유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
1주	무기를 팔지 마세요	전쟁	조사학습 현장견학
2, 3주	나는 평화를 꿈꿔요	↓ 전쟁 ↓ 평화	토론, 역할극, 문학적 접근 Storytelling을 중심으로 확장 활동 전개
4주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	평화	공동체 활동, 캠페인

4. 평화 교육 관련 도서 분석

분류	동 화 제 목	저 자	출 판 사
1주	나는 평화를 꿈꿔요 달보다 멀리 왜? 여섯 사람	유니세프 크리스틴 해리스(글)/해령웅(그림) 니콜라이 포포프 데이비드 매키	비룡소 한마당 현암사 비룡소
2주	전쟁 어미의 감자밭 나 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 왜? 이웃사촌	아나이스 보클라드 아나타로벨 마르쿠스피스터 링제이 캠프(글)/토니로스(그림) 글로브부랭	비룡소 비룡소 시공주니어 배틀북 물구나무
3주	너, 그거 이리내와 쏘피가 화가 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우리 친구하자 물개 소녀 셀키 제미내굴 제가 잡아먹어도 될까요? 호박스프 도마뱀 마도 우지끈 쿵	디에르르네(글)/베르니크보아리(그림) 물리명 쓸쓸이 요리코(글)/하야시 아키코(그림) 길리언 맥글루에 중국조산족 실화/홍석찬(그림) 조프루아 드케나르 헬렌쿠피 알렉세이 볼스토이(글)/헬란옥손버리(그림) 홍종의(글)/손향란(그림) 하인츠 아나쉬(글)/헨가반쉬(그림)	비룡소 케이 유니버스 한림출판사 KOREA DEWEY 재미 마루 배틀북 KOREA DEWEY 시공 주니어 KOREA DEWEY KOREA DEWEY
4주	선인장호텔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쇠뿔과 전쟁 평화를 꿈꾸는 요술나무 세계의 어린이 우리 친구	브렌다 기버슨(글)/미간 로이드(그림) 제인 레이 에릭 바워 작자 미상 유니세프	마루별 마루별 교학사 작자 미상 비룡소
교사 용 도서	전쟁과 소년 무기팔지 마세요 복력! 저리가 개미보다 거인이니까요 평화는 언제 오나요 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로라자제(글)/레지판레(그림) 윤정모(글)/김종도(그림) 위기철(글)/이희재(그림) 이주영 위음 구르준 대우제방 홍순정, 최석관, 신은주 공저	푸른나무 청년사 우리 교육 웅진 닷컴 웅진 닷컴 창지사
VTR 자료	화해의 문 / 왜?	희망으로 그리는 세상	유니세프

5. 평화 교육 주제 개념망



6. 주제 관련 활동

관련 영역	활 동 명			
	1주 무기 팔지 마세요	2주 나는 평화를 꿈꿔요	3주 나는 평화를 꿈꿔요	4주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이야기 나누기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중의 사람들의 모습 전쟁중의 사람들의 생활 전쟁 기념관에 다녀와요 무기 팔지 마세요.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생각의 차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종교, 자원) 모두가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들은 왜 계속 싸우는 걸까?	폭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나의 감정을 표현해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알아요 서로 서로 도와요. 서로의 생각을 모아요.	평화란 무엇일까? 처음에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 우리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동화 동시	나는 평화를 꿈꿔요. 여섯 사람 달보다 멀리 전쟁 왜?	어머니의 감지발 이웃사촌 전쟁/우리는 친구 왜/날 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	제가 잠아먹어도 될까요? 너 거기 이리 내와 도아매 마도 무지개 물고기 우리 친구하자 보따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호박 스프 이웃사촌 희해의 문 (VTR 자료) 우지른 밤	왜? 선인장 호텔 평화를 꿈꾸는 요술 나무 희망과 전쟁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노래	아기새의 눈물 위와 고양이 성난 얼굴 별그린 얼굴	내 마음이 기쁘단다 베짜이 베짜이 웃는 얼굴	성난 얼굴 별그린 얼굴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다가가서	하늘 나라 동화 하나가 되자 아이들이 그러는 세상
신체 게임	무기 팔지 마세요.	색깔 안경 쓰고 놀이하기 우리 친구하자 평화의 송	원나비의 눈물(노래곡) 악속 대장 힘 모아 영차 영차 안녕! 친구야	평화의 띠 만들기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캠페인
수 조작	이라크 여행 바느질:이라크 지도 빨강 나라와 파랑 나라 세계 여러 나라 지도 맞추기	착한 나라 여행 나눠 갖기 빙고 바느질: 여러 얼굴의 모습의 친구들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 늑대의 숲 속 여행 나눠 갖기 빙고 고마워와 미안해	선인장 호텔 평화의 비둘기 모으기
언어	내가 만약 이라크에 살고 있다면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 사진 속 친구들의 모습 이라크 친구들에게서 온 편지 부시와 후세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만화 만들기 무지개 물고기에게 쓰는 편지 전쟁과 평화 기억 게임 이렇게 했더라면 싸우지 않았을 계야(이웃사촌 화상)	이럴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결해봐요 (동화를 통한 각 문제상황 해결) 소리, 소리 언니가 되어봐요.	임금님에게 전쟁 대신 줄 선물 이예요. 평화의 요술 나무 우리가 가장 평화로운 때
미술	전쟁 사진 스크랩 이라크 친구들에게 필요한 선물 평화를 꿈꾸며 전쟁과 평화 전쟁 기념관으로 견학을 다녀와요.	전화기 만들기 잠지 속 사람들의 모습 오려 붙이기(물라주) 동화 만들기(대) 색깔 안경 만들기	물그림 비밀 편지 쓰기 친구와 직조하기 식빵 얼굴 꾸미기	평화의 포스터 만들기 평화의 랫지 만들기 우리가 꿈꾸는 세상 만들기 우리들의 선인장 호텔 만들기 평화를 꿈꾸는 요술 나무 만들기
과학 실험	지구본 속의 이라크 전쟁 관련 사진, 기사 자료 관찰	소리 상과 높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헤드 세트와 이야기 테이프(이 슬우화)		우리의 소리를 전해요.
발기 역할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다양한 얼굴의 친구들 : 역할 놀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 되어보기

7. 활동의 실제

1) 활동명 : 내가 만약 전쟁 속에 있다면

활동 목표 : 이라크 전쟁에 대한 보도 자료를 통해 전쟁 속 사람들의 생활과 모습을 알 수 있다.

활동 방법 :

- ① 교사는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하기에 적합한 동영상 자료 및 사진자료들을 준비한다.
- ② 유아들과 이라크 전쟁 중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 나눈다.
- ③ 유아들과의 이야기 나누기 후 교사와 함께 인터넷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라크 전쟁 중 사람들의 모습을 시청한다.
- ④ 전쟁 중의 모습을 시청 후 만약 내가 전쟁중인 이라크에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어떤 마음일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등 다양하게 이야기 해본다.

확장활동 : 이라크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 전쟁 속의 내 모습 그려보기

2) 활동명 : 전쟁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활동 목표 : 견학활동을 통해 체험하는 실물, 모형 또는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전쟁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 알 수 있다.

활동 방법 :

▷ 사전 준비

- ① 교사는 견학 장소를 답사하고 예약을 한다.
- ② 전쟁 기념관 내부의 관람관중 유아들이 관람하기 적합한 곳, 주제 전개에 적합한 곳을 선정한다.

▷ 견학

- ① 견학 전 사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견학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한다.
- ② 견학하게 될 곳에 대한 사전 정보 이야기 나누기 후 견학지로 출발한다.
- ③ 견학 장소에 도착해서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서 세트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관을 견학한다.
- ④ 실의 세트장에서 유아들과 직접 길을 건너고, 표지판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본다.
- ⑤ 견학을 마친 후 어린이집 차량으로 어린이집에 돌아온다.

▷ 사후 활동

- ① 유아들과 견학을 다녀온 후 전쟁 기념관에서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② 이야기 나누기 후 활동지에서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려본 뒤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발표한다.

기대되는 효과 : 전쟁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아들은 견학활동을 통해서 전쟁의 여러 모습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서 알게 된다.

3) 활동명 : 색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요

활동 목표 : 전쟁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활동 방법 :

- ① 유아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② 전쟁의 원인중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 ③ 미술 활동으로 색깔 안경 만들기를 해보고 실외놀이터에 나가서 놀이해본다.
- ④ 색깔 안경을 쓰고 본 유아 각각의 색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다.
- ⑤ 생각의 차이와 연관지어 이야기 나눈다.

기대되는 효과 : 유아들에게 생각의 차이나 가치관에 차이 같이 피상적인 부분은 교육하기 힘든 것들 중 하나이다. 색깔 안경 놀이를 통해서 유아는 자연스럽게 안경 속의 색깔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에서 연관지어보며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다.

4) 활동명 : 핑거 페인팅

활동 목표 :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활동 방법 :

- ① 미술 활동을 준비한다. (준비물 : 핑거 페인팅 물감, 전지, 신문지, 미술용 작업복)
- ② 유아들과 핑거 페인팅을 해본다.
- ③ 핑거 페인팅 활동 후 유아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는다.
- ④ 핑거 페인팅 놀이 후 유아들이 놀이한 느낌과 기분을 평가해본다.

기대되는 효과 : 유아들과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나의 감정 표현하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유아들은 핑거 페인팅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해보게 된다.

5) 활동명 : 날 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 (동극 활동)

활동 목표 :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표현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활동 방법 :

- ① 날 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 동화를 듣는다.
- ② 유아들과 동화 듣기 후 동극하기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각색한다.
- ③ 동극에 등장하는 배역을 알아보고 소품과 배경을 만든다.
- ④ 유아들과 동극 공연을 한다.
- ⑤ 여러번 반복해서 공연해본 후 소품과 배경을 언어 영역에 비치한 후 유아들이 자유 선택 활동때 놀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되는 효과 : 유아들은 평화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타인 감정의 존중하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극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기

7. 활동지 소개 : 분을 이해하는 경험을 해보게 된다.

6) 활동명 : 친구애 인형

활동 목표 : 나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활동 방법 :

- ① 유아들에게 스티커를 나눠준다.
 - ② 유아들은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음악이 멈추면 한명의 친구를 만난다.
 - ③ 유아들은 교사가 신호 악기를 흔들 때 까지 만난 한명의 친구와 이야기는 나눈다.
 - ④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기분이 좋았다면 스티커를 친구에게 선물하여 원하는 곳에 붙여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선물하지 않는다.
 - ⑤ 유아들은 인사를 하고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음악이 멈추면 다른 친구를 만난다.
 - ⑥ 친구 만나기를 여러 번 반복한 뒤 마무리한다.
 - ⑦ 유아들과 활동을 평가하면서 각자의 스티커의 수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했을 때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주고 싶었는지? 어떤 때 친구가 나에게 스티커를 주었는지 이야기 해본다.
- 기대되는 효과 :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된다.

7) 활동명 : 커다란 무 (동극 활동)

활동 목표 : 협동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경험할 수 있다.

활동 방법 :

- ① 커다란 무 동화듣기를 한다.
- ② 동극에 적합하도록 다시 한번 듣는다.
- ③ 동극에 필요한 소품과 배경을 유아들과 만들어본다.
- ④ 유아들과 동극을 공연한다.
- ⑤ 유아들과 동극 공연 후 동극 속에서 협동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다.
- ⑥ 여러 번 반복해서 공연해본 후 소품과 배경을 언어 영역에 비치한 후 유아들이 자유 선택 활동때 놀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되는 효과 : 유아들은 동극 활동을 통해서 협동하기를 경험하게 되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 중에서 함께 협동하면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다.

8) 활동명 : 평화를 사랑하세요. (캠페인 활동)

활동 목표 : 평화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활동 방법 :

- ① 유아들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② 유아들은 유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할 일들을 이야기한다.
- ③ 어른들에게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할 일들을 알리는 방법으로 캠페인을 찾아낸 뒤 캠페인 활동을 준비한다.
- ④ 평화의 뱃지와 유인물 만들기를 한다.
- ⑤ 유아들이 만든 평화의 뱃지와 유인물을 만들어서 원의 선생님과 동생들 인근 공원등에서 캠페인을 해본다.

9) 활동명 :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활동 목표 :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활동 방법 :

- ① 유아들과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눈다.
- ②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정한다.
- ③ 유아들과 정한 방법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본다.

기대되는 효과 : 평화로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 유아들은 협동 작품을 통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봄으로써 평화에 대한 개념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준비하기 막연하다'. 평화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던 말들이다. 평화교육을 시작하면서 어렵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4주간의 평화교육이 끝난 얼마 전 실외놀이터에서 생긴 일이다. 미끄럼틀에서 서로 부딪힌 유아들이 말다툼이 생겼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뛰어가며 "왜 그러니?"하고 묻는다. "아니예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애들아! 폭력은 안되잖아." "친구가 아프게 된단 말이야." "네 생각을 성호한테 말해봐" 유아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갈등상황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해결하고 있었다. 한 달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웃음을 머금게 된다. "선생님! 나는요, 이 다음에 커서 적십자의 한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은 도와줄래요." "나는요, 대통령이 돼서 나라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똑같이 땅을 나눠줄래요." "자신의 미래만을 꿈꾸던 장래의 희망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달 동안의 경험은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다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의 소중함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하게 해준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핑거페인트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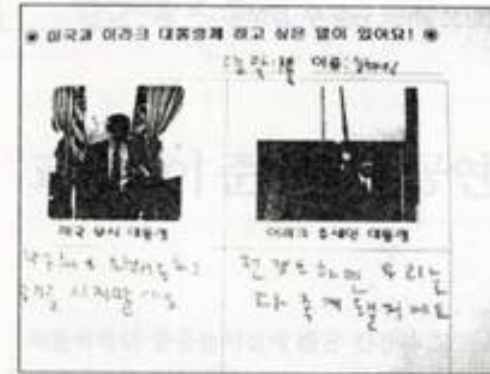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색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요]



[확장 활동: 부시와 이라크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전쟁 기념관을 다녀와요]



[날 좀 도와줘! 무지개 물고기 (동극 활동)]



[커다란 순무 (동극 활동)]



[친구야! 안녕!]



[영화 캠페인]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교사들이 준비하여 공연하는 인형극을 올리며...

떠들썩하던 공동놀이실에 짧은 긴장과 그 후로 호기심(아마도 궁금증일 것)이 분명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원인은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때문일 것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도, 누군가를 혼내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도, 그렇다고 편안한 얼굴로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검은 천을 펼쳐 두고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예쁜 막대인형들을 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분주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다.

도담의 아이들은 도대체 이 익숙치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눈빛으로 선생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막대인형극, 제목은 "꿀꿀이의 아이스크림 가게"였다.

막이 오르고 아이들의 눈동자는 무대에 고정되었다. 인형들의 움직임을 따라 아이들의 눈도 따라 움직였다. 여러 도담 교사들의 열연에 도담의 아이들은 환호성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아이들의 환호에 교사들은 앵콜 공연까지 해야 했다. 피부로 전해오는 아이들의 즐거운 아우성을 타고 교사들은 기쁨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일이란 말인가.... 약간의 고민과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준비한 인형극 하나에서 얻는 이 큰 만족감이라니...

지난 5월 어느 날 오전에 도담의 교사들이 준비한 인형극 공연의 한 모습이었다.

도담의 교사들은 2003년 한 해를 계획해 나가면서 약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공감해야 했다. 10여 년이 다 되게 함께 해온 유아들의 공간이 없어진고 영아전담시설로만 자리하게 된 2003년을 계획하다 보니 뭔가 허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듯한, 왠지 모를 허전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또 충실한 내용들로 채워가야 할 것이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제기된 교사들의 월중행사 하나, 인형극...

영아들을 데리고 인형극 관람을 다닐 수도 없는 현실이었으며, 우리 영아들이 불안한 인형극을 올리는 극단도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몇몇 도담 교사들의 하나같은 의견이었다.

1회의 인형극의 대성공에 이어 2회의 동극 "빨간 사과"도 약간의 어색함(막대 인형극과는 또 다른, 교사들의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오버하는 모습에 대한 아이들의 어리둥절함에서 기인한)과 함께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즐길 권리를, 교사들에게는 기쁨을 얻을 권리를 준 인형극 제안에 도담의 모든 교사들은 지금도 크게 고개 끄덕여 평가한다. 7월의 인형극을 기대하며 도담의 교사들은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여닫는다.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수?

박인해 · 서울, 씹씹이어린이집

"스승의 날 특별히 신경 쓰지 마세요. 평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서운하면 아이들과 맛있게 먹게 간식거리 마련해 주세요."

매년 5월 중순 무렵이면 부모들한테 하는 말이다.

하나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 한 구석이 좀 씁쓸해진다.

스승의 날이 부모들한테 부담스럽게 자리잡은 사회적 분위기가 싫고 그래서 부담 갖지 말라고 일일이 쟁겨야 하는 내 입장은 더 싫고.

어느 해인가 현관문에 '씹씹이 이모들은 스승의 날에 꽃과 선물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란 안내문을 붙여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민망해 들고 날 때 현관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기억도 있다.

어찌되었든 씹씹이는 4년 전부터 5월 15일날 오전엔 편지 읽는 맛에 지내고 오후 간식시간은 엄마들이 마련해 주는 푸짐한 음식 먹는 맛에 지낸다.

올해도 기대수준은 편지는 몇 통이나 올까, 간식은 뭘 먹고 싶다고 주문할까 있다.

그런데, 2003년 5월 15일 아침은 다른 날이 되었다.

월드컵 4강 진출보다 더 큰 감동의 날이다.

손가락이 바르르 떨리며 가슴 밑바닥을 치받고 올라오는 뭉클함에 눈물이 맺힌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앨범에 담겨진 아이들의 모습, 엄마, 아빠의 모습, 할머니, 언니, 누나, 동생 모습, 서툰 글씨의 아이들 편지, 엄마, 아빠가 쓴 편지.

넘기는 장마다 "세상에, 세상에"란 감탄사만 나온다.

5년 다닌 놈의 한 해 한 해 변천사, 이모들이 보지 못했던 씹씹이 다니기 전의 아가적 모습, 가족사진 중에 제일 멋지게 나온 사진만 골라서 붙인 집 등, 집집마다 온갖 재주를 동원해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으로 꾸며진 스승의 날 기념 씹씹이 아이들 가족 앨범(보여주지 않고 설명하기가 너무도 힘들다).

3월 부모회에서 은밀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4월 달부터 각 집에 앨범을 분철해 한 장 한 장 나눠주고(공평을 기하기 위해 내용 채우기는 한 장으로 제한했다 함) 5월 14일까지 씹씹이 현관 앞 세탁기를 우체통 삼아 모아 모아서 이렇게나 멋지고 멋진 선물을 마련했다 후일담을 듣는 데 그 마음 씀에 다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런 소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온다.

"이거 한 번 볼래? 이 세상 선생님들 중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 받은 사람 있으면 어디 나와 봐!"

그리곤 한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아 놓고 자랑하는 내 모습에 빙그레 웃을 짓는다.

광주전남보육교사회의 5월 달려가기

박화명 · 광주전남지부 사무국

아, 나의 5월..

너무나도 숨가쁘게 달려온 5월이었다. 그렇다고 먼 옛날 그 어느 때처럼 거리에서 구호 외치며 뛰어 다니던 5월처럼 거리를 달려 다닌 건 아니지만, 그 못지 않는 소중한 가치와 바른 보육풍토 실현을 위해 나와 우리 지부의 선생님들은 많은 일들을 일궈내었다. 5월 영령 앞에 결코 부끄럼 없는 삶을 위해...

5월 9일

참 햇볕도 따가운 날이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단체 회원들과 여연 사무국 식구들과 함께 별 따가운 망월동 5.18묘역으로 나섰다. 미스코리아대회 본선 참가자들이 5.18묘역에 참배를 온다는 소식에 우리들은 피켓을 들었다. 5.18묘역 참배야 그 누가 한들 막을소냐만은 미스코리아대회 준비팀의 참배 기획의 그 속내를 알고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이미 '정신대할머니 위로방문'도 거치고 오 는 터라 했다.

21세기 시대에 전근대적이고 성상종화 조장의 주범이라는 비난의 타겟이 된 미인대회에 쏟아지는 비난을 줄여보고자, 힘없고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세력들을 무작정 이용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지역 여연에서는 항의성 피켓을 들었던 것이다. 별 특징 없는 얼굴들과 탁대기 같은 마른 몸을 지닌 20여명의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은, 대회 주최측의 삼엄한 경계와 우리쪽을 보지말고 걸으라는 경고 속에서, 우리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걸었다. 동생 같은 아이들의 맘에 상처가 되지 않고 우리들의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5월이 지난 지금, 화려한 조명 속에 서 있는 그 여인들의 가슴속에, 5월 묘역의 영령들이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는지...

5월의 시작과 함께 가장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 중 한 명이 우리 지부의 말신언니였다. 4월부터 준비했던 '5월 인권상 추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교사회와 10년이 넘게 교류해 온 일본 오사카 성애원 보육소의 구와바라 시게오 목사님을 5월 인권상 후보에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5월 인권상은, 5.18광주항쟁이후 제정된 5월시민상과 윤상원(5월항쟁열사의 대표적 인물)상을 통합하여 광주항쟁의 인권?평등?평화?통일의 정신을 기리고 독려하기 위해 수상해오고 있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재야 운동계의 큰 상이다.

구와바라 목사님은 70, 80년대 한국 민족민주운동을 일본에 알리고 지지지원활동을 꾸준히 해 오신 점과 재일조선인의 인권운동, 전태일열사분신을 계기로 하는 한국노동계 투쟁의 지원활동 등의 공로를 크게 인정받으셨다. 이에 공감하는 한국교육교사회와 광주전남여인이 공식적으로 공동추천을 해 주었고 전국과 광주의 많은 어르신들과 유명(?)인사들이 지원추천을 해 주셨다. 일본과 한국을 넘나드는 자료수집과 홍보전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5월 18일 시상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5월 17일

오랜만에 열리는 회원 월례회였다. 목포지회 새콤.. 어린이집의 새 선생님들과의 첫 대면이이기도 했다. 모임의 주내용은 '반전평화교육'에 대한 토론회였다. 중앙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도 좋았고 우리 선생님들의 보육현장 이야기와 진지한 열의도 좋았다. 월례회가 끝난 후 5.18행사에 맞춰 광주에 오신 '일본 보육관계자' 선생님들과의 저녁식사자리가 있었다.

에다모토 선생님, 히구찌 선생님, 김혜영 선생님, 모리모토 선생님, 쿠사바 선생님... 그 외에도 여러분...

오랜만에 마주 대하는 반가운 일본측 선생님들과 우리 회의 공동대표 이윤경님과 광주 쪽 보육교류협의회 원장님들까지, 파스하고 즐거운 담소 속에 5.18전야의 밤은 시작되고 있었다.

식사 후, 전야제가 한창인 전남 도청 앞으로 나갔다.

무대 위에선 진혼곡이 한창이고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틈틈이 탈춤 마당, 인형극, 노래극, 대학생운동마당, 태권 시범 등의 볼거리들이 우리 눈길을 끌었다. 금남로 인도 쪽으로는 5.18 당시 사진전과 이라크전의 참상과 미국을 고발하는 사진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찾자는 서명 선전전 등이 있었다. 어찌 보면 시민 축제 같기도 하고 진혼곡관 같기도 한 분위기 속에서 난 조금 이방인 같았다. 관 주도의 행사에는 체질적으로 뭔가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과 단체가 여유를 가지고 참석해서 좋았다. 단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한몫 쟁겨 보려는 자본주의의 상도(?)와 일부 인사들에는 정말 짜증이 났다.

일본측 선생님들은 언어가 안 통하는 속에서도 뭔가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애쓰셨고, 23년 전 5.18항쟁의 의미 찾기에 적극적이셨다. 그 속에서 23주기 5.18 전야제는 저물고 있었다. 내일의 기념식과 시상식을 앞두고...

5월 18일.

망월동 묘역에선 학생들과의 충돌로 기념식 행사가 지연되고 있을 무렵, 나의 발걸음은 금남로를 종횡무진하고 있었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 여성과 아이들에게 평화를!'이라는 주제로 지역여인 소속 단체들은 '5월 여성 한마당'을 주최하기로 했었기 때문. 그 속에서 우리 지부는 공보육 확대에 대한 선전과 광주시 보육조례제정에 대한 선전, 시민요구도 조사를 벌여내기로 했다. 23주기 5.18을 기념하는 본대회와 오후 금남로 행사들은 광주 시민들 대다수가 한번씩 참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 볼 기회로는 더 없이 좋았다.

금남로 한복판에 시민참여 설문 스티커 판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담긴 기획 대자보판을 설치하고 그 옆 천막에서는 부모님들을 상대로 요구도 조사 설문작업이 진행되었다. 우리 지부 선생님들은 황금같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조를 짜서 선전작업과 설문지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틈틈이 인도 가득 메운 사진전과 전교조 주최 학생대행 그림을 감상하며, 주한미군범죄 중언대회



에 오신 효순, 미선이네 부모님의 한숨에 같이 눈물 지으며, 5.18 23주기 본대회의 그 감동과 열정을 함께 하며, 민가협과 적십자사 어머님들이 준비해 주신 맛난 주먹밥과 어느 시민단체에서 후원해 주신 시원한 생수로 점심을 때웠다.

힘있는 자의 무지한 폭력이, 못된 권력이, 전쟁이, 여성과 아이들과 이 땅에 아니 우리 모두의 미래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우리는 5월 여성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애썼다. 여성의 전화에서 준비한 춤과 퍼포먼스와 민우회의 퀴즈대회, 여성과 성상담소의 호주제 폐지 캠페인, 우리 지부의 선언문 낭독까지 모든 행사가 참석한 시민들 모두의 가슴에 평화의 메시지로 오래오래 남아 울리기를...

보육조례제정에 대해 시민들은, 의외로 보육이나 조례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반응이 있었고 특히 아빠들은 '난 에 키우는 문제 몰라요....' 하시며 기초적인 보육관련 문항에도 난감해 하셨다. 참.. 이 집 아파나 저 집 아파나 어찌 그리...

오후 4시가 넘어, 요구도 조사 설문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깃발들과 군중들도 조금씩 흩어졌다.

올해 23주기 5.18 행사는 참으로 다양한 단체들의 준비와 참여가 두드러졌다. 5.18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5.18은 '폭도들의 난동'에서 '평등과 인권', '나눔과 공동체', '평화와 통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실제로 23년 전 5.18 당시 광주의 상황은 '대동세상'이라는 어르신들의 중언이 가장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크게 하나로 뭉쳐 투쟁하고 지켜내고 나누고 어울리고...

그래서인지, 올해의 금남로엔 장애인단체나 외국인노동자인권운동단체, 자원봉사 단체, 제3세계투쟁세력들도 다양하게 참여했다. 모두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상대가 가진 것을 채워 함께 하려는 모습들이었다. (아니, 황미혜씨의 '포괄적 프로젝트'의 의미가 여기서도 살아 있다니.. 놀라워라..)

나도 우리 지부도 새 힘을 받았다.

인권상 시상에서의 아쉬운 결과가 내년을 기약하는 새 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었듯이...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다녀와서...

최현희 · 서울, 어깨동무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교육강좌내용을 전달받고 원장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강좌가 열리는 숭실대학교로 향했다.

평소 나는 "아이들과 어떤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좋아할까?", "미술활동은 어떤 것이 좋을까?", "전학은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 속에 하루 하루를 보냈는데(일반 보육교사라면 아이들의 교육부분에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실무자훈련'이라는 생소한 문장을 접하며 강좌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첫 시간부터 내게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던 아동보육의 필요성을 배우며 먼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을 더듬었다. 교수님께서 "지금우리의 아이들은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을 내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워야한다."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래, 내가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워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겠구나! (더불어 나의 삶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내 사고의 발상을 열어주었다. 지금까지는 '내 것'을 무척 소중히 여겼고, 내 주위의 소중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내 것'을 나누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자원(재능, 재산, 힘 등등)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같이 공유해서 서로 win-win(모두가 승리자)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네트워크



워크숍 연필게임은 3팀으로 나누어 한 팀에게는 짝지 않은 연필 3자루를, 한 팀에게는 종이 13장, 한 팀에게는 칼 3개를 나누어 주고 각 조별로 '어떻게 하면 연필표시가 되어있는 메모지를 가 능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서로 눈치만 보다 게임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우리 조(칼)는 칼 1개와 연필 1개를 바꾸고 연필을 반으로 부러뜨려 종이를 가진 조와 협상하여 우리는 종이를 6장 갖고 2등을 했다. 하지만 모든 조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강사님께서 가르쳐주셨다. 3조가 모든 자원을 합해 함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시간의 그룹 워크숍에서는 '친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남매 이야기'를 통해 우리 지역 복지당 만들기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내가 알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토의하는 과정에서 개발해야 할 자원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까지 우리 반 아이들을 내가 교육해야 할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그 아이들의 고민이나 가정환경, 그 가정의 경제형편 등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육 강조를 통해 개개인의 가정환경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지 개개인의 아이들이 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 동안 소홀했던 점이 무척 미안했다.

사례발표를 보며 포괄적 서비스라는 것이 그리 힘든 것이 아니며 내가 좀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히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육교사로서 가정환경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며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을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국의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정책을 담당하시는 복지부 직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산보육교사회 어린이의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달 - 5월 공동연대활동 소개

김 명 선 · 본회 공동대표, 부산지부장

5월 평화와 인권, 통일을 생각하는 달을 제안하며

해마다 부산보육교사회는 5월 어린이날 행사를 부산교대에서 지역어린이 단체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년간은 어린이날이문화 중심의 행사가 아닌 어린이인권마당을 진행하여 우리아이들이 소중하게 지니고 자라야 할 평화와 평등, 인권, 통일의 가치를 문화 속에서 체험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5/5일 어린이날 하루행사 대신(5월 한 달을 지속적으로 있을 순 없겠지만요),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현장실천들을 함께 해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현장실천 결과물과 실천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경험과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을 통해 연대의 힘으로 평화, 인권의 공동행사를 함께 정리하는 의미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어린이 문화제(어린이 평화 한마당)>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동(연대)행사 내용제안

- 1) 어린이인권과 평화를 생각하는 달: 5월 한 달을 (반전)평화, 인권교육을 일상적으로 벌이는 달로 선포
 - 선포식: 보육교사회에서는 언론홍보를 통한 평화의 달 선포식과 취지 및 내용 나눔
 - 함께 하는 어린이집별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 속에서 선포식을 가지고 평화의 달 기념 깃발 제작하여 밖이나 내부에 걸기로 시작의 의식 갖기(예: 평화와 상생, 공존을 위한 무지개 깃발 달기)
- 2) 5월 말경 집중의 날로 하루 잡아 공동연대행사 만들어 내부 성과를 결속하고 외부확산
 - 제안 일정: 2003년 5월 30(금) 시간: 미정 장소: 어린이대공원
 - 공동행사제안 명: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어린이 문화제(어린이 평화한마당)
 - 방식: 문화제 기획에서 참가 단위별로 한 꼭지씩 맡아 공동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한 일상활동의 결과물 들 거리전시 / 단위별 공연(노래나 그 외) 혹은 참가내용 마련하기 (이라크어린이돕기 모금은 아이들의 활동결과물 판매나 반전평화 뱃지 나눠주기, 평화

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책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방식의 당일모금활동)

2. 어린이를 위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달

- 일상실천활동의 사례(어린이집 현장 활동의 예)
- 아이들과 함께 실천 방식 만들기: 평화와 인권의 달 선포식 공동깃발제작
- 이라크어린이 구호기금모금: 어린이집의 활동방식에 맞는 다양한 모금 방식고민
- 어린이집별 학부모가 참여하는(가능하다면 지역에 개방) 평화장터, 어린이집 하루찾집 등
- 이라크아이들에게 보내는 반전평화 그림일기나 엽서 만들어 보내기
- 평화와 인권에 대해 아이들과 만드는 뱃지 제작
- 아이들과 공동작업한 걸개그림 혹은 포스터 등 어린이집 바깥벽에 전시하기
- 어린이집 외벽에 반전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게시판 만들어 지역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기
-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차량에 포스터, 평화깃발 붙이기
- 평화와 인권 관련단체 방문
- 부모교육(평화, 인권교육활동의 의미해와 공감, 지지받기 / 부모용통신문)
- 할 수 있는 것들: 이라크 어린이 구호기금, 북녘어린이돕기 기금모금

어린이 평화한마당

- 5월 30일(금) 오전11시-오후3시까지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 어린이 반전평화 공연발표
- 어린이 작품전시
- 반전평화 도서전시회
- 통일 전래놀이마당 (통일꽃줄넘기/ 평화투호던지기/ 평화비석치기)
- 전쟁과 여성?어린이 사진전시
- 주관: 부산보육교사회(참가문의: 554-9668) / 부산여성단체연합

<어린이 평화와 인권의 달 공동주제활동 제안 이후 활동취지 및 실제 진행 사례>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거나 중요한 대화나 놀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어른들의 화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아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준비된 막강한 무력시스템 앞에 너무나 쉽게 끝나버린 전쟁의 종결을 보면서 평화의 문제가 전쟁의 승리 속에 묻혀 버리고 말 때 아이들은 폭력적인 힘의 승리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

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교사인 우리들 또한 평화의 가치관을 책임 있게 고민하지 않고 호지부지 넘어가 버리게 될 거란 걱정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평화를 향한 자신들의 직접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공동의 염원을 느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5월을 <어린이를 위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달>을 주제로 소속 어린이집들에게 공동연대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반전평화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활동한다는 것은 접근방식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세상을 향해 던질 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도 평화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안된 내용에 뜻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들에서 각자 어린이집의 특성과 아이들의 관심 내용을 잡아 반전, 평화, 그리고 어린이인권을 주제로 형편껏 교육실천을 해보았고 그 중 몇 군데 어린이집에선 평화기금 모금을 그 활동의 한 가지 방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 포구나무 어린이집 -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활동 중에 아이들의 군것질과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있는 스틱 장난감사기를 줄이거나 안하고 모은 용돈으로 이라크아이를 돕기 성금모으기활동으로 손때묻고 코묻은 성금(25,170원)
- 해맑은세상 어린이집 - 부모모임을 통해 아이들의 힘으로 평화기금모금 활동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 아이들이 집에서 심부름한 대가를 용돈으로 받아 어린이집 공동기금마련 저금통에 한달 동안 찜찜이 저금하여 취합하여 전달(50,000원)
- 자유로운 방과후교실 - 이라크어린이 돕기를 위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생활물품들(쑥주머니, 손바느질가방, 종이접기로 작품만들기, 딸기캔 등)을 직접 만들어 부모모임에서 그 뜻과 함께 자기가 만든 물품을 들고나와 소개하여 경매로 팔아 기금마련(87,000원)
- 해야해야어린이집 - 이라크아이를 돕는 하루찻집(아이들이 정한 찻집의 이름= 차가 맛있는 찻집)열기 행사를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여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들꽃액자책갈피/도자기소품/쑥주머니/종이바구니, 들꽃바구니 등) 판매와 함께 이웃과 부모, 친지분들 초대하여 찻집열기 = 245,600원)

〈평화기금 전달식〉

부산보육교사회는 지난 이라크전을 경험하면서 우리아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5월 한 달을 <어린이를 위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달>을 주제로 소속 어린이집 들에게 공동주제 실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어린이집들에서 각자의 특성과 아이들의 관심내용을 잡아 반전, 평화, 어린이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실천을 했으며 그 중 몇 군데 어린이집에선 평화기금 모금을 그 활동의 한 가지 방식으로 선택하여 아이들과 함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라크어린이를 돕기 위한 활동을 벌인 결과로 교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의 결과물로 평화기금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5월 30일 부산지부 소속 어린이집 연합 행사로 준비했던 '어린이평화 한마당'은 우천으로 취소되었으며 뒷날인 5월31일 어린이대공원에서 부산여연 주최로 열린 부산시민평화한마당 행사장에서 모금취합한 기금 407,770원을 복녘어린이돕기 의약품지원본부앞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이라크어린이돕기 지원본부가 공식적으로 마감이 선언된 상태였으므로 아이들의 양해를 구해 복녘어린이돕기로 전달하기로 함)

평화기금 증서

복녘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 앞

총 금액 = 407,770

(참여어린이집 : 해야해야어린이집 / 해맑은 세상 어린이집 / 포구나무 어린이집 / 자유로운방과후)

부 산 보 육 교 사 회



조직간사로 근무를 시작하며...

임정수 · 본회 조직간사

조직간사로 근무를 시작한다는 것은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며 또한 우리 회와 방향을 같이 한다는 것이겠지요.

우선 저에 대한 홍보(PR)를 위해 저 개인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좋아 또 여성이 좋아 보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 후 현장에서 보육교사로 금년까지 1년 2개월간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삶을 경험하려고 의도적으로 움직였으며 또한 때로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상고 야간을 다녔고요(중학교때 공부를 지 지리 못해서... But 대학 때는 어땠을까요?), 직장생활은 S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4년간 근무했고요, 군대는 서울 잠실에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고요, 꿈과 패기가 있어 100만원을 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호주에서 일(농장에서 복숭아 하루에 삼 만 개 따기, 일해주고 돈 못 받기)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하는 등 문화체험으로 약 반년을 보냈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삶을 보며 경험하며 인권 및 개인의 자유,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아동과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보육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삶이 남성 눈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더 좋은 사회라면 여성과 아동이 좀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남자교사가 말하기를 "이 직업 좋기는 한데 앞으로 2년만 더 했으면 합니다. 결혼하고서는 힘들지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보육교사회랑 인연이 된 것은 작년 초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가을 무렵 이윤경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교사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재는 편이라 망설였지요. 그런데 참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또 여러 회원님들의 따스한 정 때문에 사랑이 목말라 이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요. 참 좋지요... 그렇게 회원의 인연을 맺고 활동 중 조직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은 일, 내가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원을 했고 서류전형과 면접의 과정을 거쳐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며 많은 부분에서 모르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이잖아요? 어린 썩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보호와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무력무력 고육으로 성장하겠지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는 것이겠지요. 사무국 선생님들과 또 현장 지역과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하기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충분하리라 확신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ps. 그리고 제 전화 스타일로 인하여 제가 여자인 것 같다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가끔은 여성을 꿈꾸는 분명한 대한민국 예비군입니다.

남초초등학교 2학년 2반 임정수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5일,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5일,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5일,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김지영 · 부산지부 그림책소모임

글, 그림 엔터니 브라우니 | 옮김 김향금 | 삼성출판사

내가 두리둥실하고 파스텔톤의 책을 좋아해서인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색상이나 여러 가지가 화려하고 눈에 띄긴 했지만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하지만 몇 번 다시 되풀이해서 읽어 볼 때마다 내용과 그림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참 재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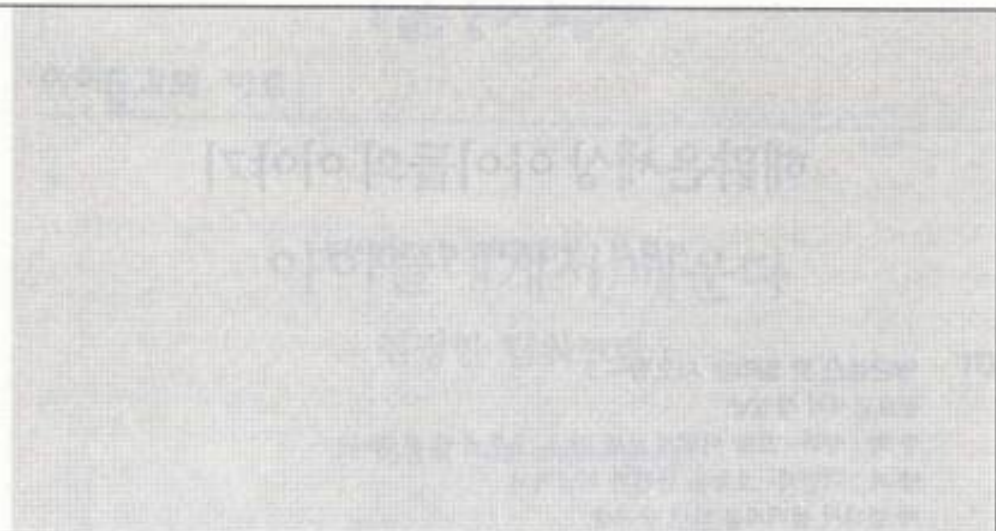
이 그림책은 공원에서 두 가족이 겪은 일을 한 명씩 다시 보여 주면서 전체의 이야기를 조금씩 완성해 가고 있다.

모자가 트레이드 마크 같은 찰스의 어머니.... 그녀는 아들 '찰스'와 기르는 개 '빅토리아'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원을 찾는다. 그에 비해 스머지의 아빠는 나갈 일이 있어서 딸 '스머지'와 개 '알버트'도 데리고 공원으로 나왔다. 그렇게 공원으로 간 찰스의 엄마, 찰스, 스머지의 아빠, 스머지가 공원에서 겪은 일을 모두 다른 시각으로 나누어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거의 같은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의 엄마, 찰스, 스머지의 아빠, 스머지는 그 일을 참 극과 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 주고 있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여기서는 스토리 외에도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것도 참 재미있다. 그리고 각각의 주인공들 감정상태를 또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모자로 자신을 꼭꼭 눌러 둔 뽀빠에 잔뜩 억압받고 있는 듯한 '찰스엄마의 공원'은 햇빛이 점



점 저물어 노을이 되어가듯이 풍성하던 자연의 생명이 점점 저물어가는 '가을공원의 모습'을, 경제력이나 자신감, 외욕 등을 많이 잃어버린 '스머지아빠'와, 엄마의 그림자로 잔뜩 주눅 들고 움츠러든 '찰스의 공원'은 앙상한 나뭇가지지만 남은 '겨울공원의 모습'을, 활기차고 밝게 볼 줄 아는 스머지의 공원은 풍성하고 화려하며 '생명력 넘치는 공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세심하게 신경을 쓴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중 스머지아빠의 이야기와 찰스엄마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아이들이 우리 어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가?', '우리 아이들은 나로 인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등 여러 생각에 갑자기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면서 아직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후에 내 자녀에게도 풍요롭지 않아도 밝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로 기르고 싶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나머지 내가 경험한 그림 속 이야기조각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그 책을 찾는 친구들을 위해 조금 남겨 둘까 한다. 누구든 그 숨어있는 조각들과 신나게 숨바꼭질 한 번 해보는 건 어떨지...

해맑은세상 아이들의 이야기

서행선 · 부산, 해맑은 세상 어린이집

01 당근샘은 못 말리는 사오정~ I

동료교사의 생일날.

수 박 : 양과~ 오늘 어떻게 보낼 거야. 오후에 한 잔 하나?

양 과 : 미안해~ 오늘은 남편과 떠날꺼야.

저 멀리서 설거지를 하던 당근샘,

당 근 : 뭐! 양과가 딱해 온다고?

02 당근샘은 귀여운 사오정~II

파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당근이 얼른 뛰어가 전화를 받는다.

일박보육을 함께 하기로 한 아기 자람터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자람터 : 여보세요. 여기 자람터대요. 양과샘 있습니까?

당 근 : 예, 잠깐만요. 양과~ 전화 받아라. 다람쥐란다.

03 4살 박이 해민이의 거짓말

이라크 친구들을 도와 줄 명목으로 매일 심부름을 해서 돈을 모아오기로 하였다.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하는 말

해 민 : 엄마, 백 원만.

엄 마 : 왜?

해 민 : 이라크 친구들 도와주게...

다그치는 엄마: 아침도 아닌데 왜 벌써 달라노? 심부름도 안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어디 쓸 건데?

한참을 망설이던 해민이,

해 민 : 사실은 내 오복슈퍼에 갈라꼬 그라는데....

04 엄마, 아아 아나?

점심을 먹는데 3살짜리 채은이가 잠이 오는지 청얼거려 재우러 들어갔다.

채 은 : 엄마, 여기 누워. (어설픈 발음으로)

수 박 : 응, 그래, 눈 감아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한참을 관히 쳐다보며 자장가를 듣고 있던 채은이, 수박 이에 낀 고춧가루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큰 소리로 한 마디 한다.

채 은 : (손가락으로 이를 가리키며) 엄마! 아아, 아아.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 진정한 팀워크란... -

이경녀 ·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4년간의 외출을 마치고 다시 씩씩이에 복귀한 지 이제 딱 한 달하고 4일째.

아이들과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는데 사무국에서 예전에 펑크낸 고별기 원고를 '아이들과 하루'로 대체하란다.

이제 한 달짜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다고.... 끝글 끝...

그치만 어찌랴. 나 역시 원고 섭외의 어려움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내가 다하지 못한 원고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 우리 아이들과 활동한 내용을 좀 풀어볼까 한다.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원고는 우리의 감성을 울리는 글이어야 마땅했지만 내 성격상 남의 심금은 잘 못 울리는 관계로 그냥 사실 중심의 일기가 되지 싶다.

지금부터 2주일 전 나는 아이들과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 회의를 한 적이 있다.

8명의 큰외반(6, 7세) 아이들과 3명의 깽두기(초등1)들이 두 팀으로 나눠 회의를 했다.

주제는 '종이훈과 자연물을 이용해서 어떤 공동작품을 만들 것인가?'

씩씩이 아이들은 그 동안 오전, 오후에 다닌 산책길에서 주워 모은 여러 가지 나뭇잎과 열매, 돌맹이 등을 이용해서 두 팀이 공동작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작업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다.

첫 번째 팀은 이종현과 성윤이(초1), 유빈(7세), 선종현, 보람, 민정이(6세)로, 두 번째 팀은 수정이(초1), 윤지, 최수, 달순, 채석이(7세)로 구성하였다.

두 팀 모두 처음에는 깽두기들의 주도로- 다시 말해 깽두기들 맘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팀에서는 내가 "모두 수정이의 생각에 찬성하니?"란 질문을 던지자 붓물 터지듯이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느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급기야는 뱀에서 듣기에 싸우는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교사방으로 장소를 옮겨 아이들의 치열한 토론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교사방에서 10여분간 의논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모의 도움을 요구했다. 수정이와 채석이, 달순이는 같이 사람의 얼굴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최수는 물고기를 만들자고 주

장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다.

아, 사람얼굴이나 물고기나 이것 하나 결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참, 윤지는 중간에 먼저 갔다.

이를 견디지 못한 달순이는 "그럼, 너는 물고기 만들어. 우리는 사람얼굴 만들고 나중에 같이 우리 작품으로 내자." 그러나 회수는 묵묵부답.

수정리와 채석이는 어서 결정이 나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며 회수가 그만 양보해 주기를 바랬고 나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수는 자기는 혼자이고 나머지는 3명이므로 3명이 자기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확 뒤집는 논리를 내세웠다.

나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데 뜻밖에도 수정리와 달순이는 회수에게 양보를 했다. 채석이는 수정리와 달순이의 애절한 설득에 잘 모르겠다며 자기의 주장을 포기했지만 물고기를 만드는 것도 완성하지는 않는다.

재차 아이들이 설득하니 채석이는 마지못해 응했다. 다음에는 회수가 양보하라며...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서로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물고기를 중심으로 물고기 먹이와 물풀, 바위 등 바다 속 풍경을 함께 만들어 냈다.

조화로운 한 폭의 전시물이 완성된 것이다.

첫 번째 팀은 이와 반대로 각두기의 지휘 아래 각자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었다.

나는 아이들의 이번 활동을 보며, 또 그 동안 내가 참여한 회의의 여러 모습을 생각하며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내 것을 공동의 주제로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함께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아이들.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그러면서 얼굴이 붉혀진다. 지금의 나는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어제도 나는 교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 짝 잊고 혼자 독불장군이기를 고집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며 더욱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렇지만 쓰라린 반성과 함께 나는 발전할 것이다. 나에게 민주적인 삶을 가르쳐 주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 민망한 서울생활의 시작, 그래도 잘 커가고 있는 아가 -

주로미 · 본회 명예회원

멋있게 서울을 떠났었는데 참으로 민망한 서울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본의 아닌 처가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만만한 전세 거리를 얻기가 쉽지 않았고, 게다가 남편의 뜻하지 않은 입원으로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임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으로 몇 일을 마음 졸이며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잔해진다. 다행히도 암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다. 그냥 내 옆에 살아만 있어주면 될 것 같았는데 퇴원 후 초조하게 일을 찾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기가 힘들어졌다. 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었다. 반면 상구는 심심하지만 낮익은 서울생활에 제일 먼저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에 남편이 함께 하게 되었고, 우리는 100일을 서로 기다리며 헤어져 있게 되었다. 그 기간은 남편에게도 내게도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아기는 잘도 커가고 있었다. 아주 건강하게!

2002년 3월 31일(일) 따뜻한 날이다 - 임신 19주

아가야! 이곳은 백병원이다. 이젠 아동이 창 밖을 질게 물들게 하고 어둠 속에서 예배당의 노란 십자가 네온만이 선명하게 비추고 있단다. 엄마가 이 시간에 병원에 와있는지 우리 아가는 알고있지? 꼬박 이틀동안 엄마를 초조하게 하고 눈물나게 했던 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가는 잘 알고 있을 거야. 지금 현재로는 축농증과 눈 밑 뼈를 대체해야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단다. 염증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조직검사를 해봐야 알지만 처음 안과에서 진단했던 것과는 달라 한시를 놓았다. 우리 아가도 무척 힘들었을 거야. 몇 일 잘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우리 아가도 몹시 긴장하고 슬퍼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구나. 아가야! 뱃속에서도 기도하렴. 아빠가 수술 잘되고 건강하게 다시 우리 가족에 올 수 있도록 말이야. 엄마가 초조해하고 슬퍼하더라도 좀 이해해주렴. 아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니 충분히 이해하겠지?

상구오빠는 오늘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게 될 거야. 아까 엄마랑 병원 앞에서 헤어지는데 울었단다. 눈물을 소매에 쓱 닦으며 손을 흔드는데 엄마도 가슴이 아파 뒤돌아 울었어. 씩씩한 상구와 우리 아가 모두 잘 견뎌 낼 거라 엄마는 믿는다.

가슴속 깊이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는다. 우리 아가에게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엄마가 힘들어하고 우리 아가를 고되게 하고 있는데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으니 어찌 고맙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니. 우리의 작은 천사. 숨막힌 이곳에 앉아 감사의 눈물을 꼭꼭 참는다. 모든 것에 감사 할 뿐이다.

2002년 5월 3일 (금) 축축히 단비가 내린다 - 임신 23주 4일

어젯밤 모두들 잠든 밤 화장실을 가는데 툭! 툭! 가느다란 소리가 창문에서 났다. 얼른 창 쪽을 내다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구나. 그 소리가 어찌나 이쁘던지. 그 예쁜 소리가 엄마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더라. 어젯밤엔 속상해서 엄마가 조금 울었거든. 왜 그리 눈물이 나오는지... 아빠가 미워지고 원망스런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그 예쁜 빗소리도 그저 슬프게 들릴 수밖에. 요즘엔 자꾸만 작은 일에도 소심해 지는 것 같구나. 아침에 일어나니 한결 마음은 가벼워졌다. 우리 아가를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도 잘 안 된다. 엄마가 속상해하니 우리 아가가 얼마나 불안했겠니. 미안해. 그래도 엄마 아빠는 우리 아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잊지마. 오빠가 그러더라. 동생이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모두들 우리 아가를 기다리고 있지. 어제 엄마는 '쟁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동화책을 읽었다. 인천의 만석동 쟁이부리말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지. 가난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서로 부둥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어. 엄마가 요즘 잊고 살아가는 부분을 일깨워주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엄마는 혼자만 잘살려고 발버둥치는 건 아닌지... 미안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안스럽다. 힘든 이 시간을 서로의 애정으로 함께 헤쳐 나가야겠지?

2002년 6월 15일 (토) 한때 지나가는 비가 내렸다 - 임신 29주 3일

한비아라는 아줌마가 쓴 '세계의 오지 여행기'를 읽고 있다. 5년에 걸쳐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며 세 내려간 책이지. 지금 엄마가 읽고 있는 곳은 중남아메리카와 알래스카를 여행한 이야기야. 여성의 몸으로 혼자 배낭 여행을 하며 느끼고 겪었던 소중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어제 단숨에 읽으면서 엄마도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 - 전통을 지켜온 아름다운 인디오의 나라 -을 여행하는 기분이었어. 여행은 참 소중한 경험을 갖게 한다. 자신의 현재 삶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들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스승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는 무척 부러웠어. 우리 아가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면 엄마와 함께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까? 엄마는 오래 전부터 마흔이 되면 인도여행을 할거라고 했었지. 그런데 마흔이 되어 우리 아가를 갖게 되었으니... 아쉬움은 있지만 그 못지않

은 선물을 받게 되었으니 괜찮아.

중남아메리카는 이 책에서도 간간히 밝히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이다. 잉카와 마야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면서도 그 화려하고 신비한 문명은 과거의 불가사의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후 서구 제국주의의 수탈의 땅이 되었고, 지금은 미국과 그 밖의 거대자본의 노예가 되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단다. 가난하다 하여 함부로 대하는 오만하고 불손한 외국 여행객에 대한 불쾌한 감정들을 토로하면서 한비아 아줌마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정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 땅의 주인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단다. 엄마 또한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그들의 소박한 삶이 마음마저 간절하게 해준다. 고마운 일이다.

세계여행은 우리가 교과서로 배워온 서구식 세계사를 다시 뒤엎어 보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구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계사는 정반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구나. 침략자, 약탈자가 신대륙의 발견자, 개척자로 기록되었듯이 말이야. 점점 더 궁금해진다. 어느 나라의 이야기가 이어질까. 우리 아가도 엄마와 함께 세계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행복한 여행을.

2002년 8월 1일 (목) 잠시 지나가는 비 - 임신 36주 2일

실속 없이 하루종일 제루둥하더니 잠시 지나가는 비가 내렸단다. 그래도 오늘 정도면 지낼만하구나. 여전히 후덥지근하지만 말이야. 8월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아가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하루 하루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오늘은 참 무요한 날이었어. 상구오빠도 하루종일 혼자서 심심해했고 덩달아 엄마도 나른하고 빈둥거리며 지냈단다. 날씨 탓으로 돌리자니 치사한 것 같고...

이제는 조금만 서있어도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드는구나. 막내이모는 막달 임신부치고는 전혀 부기가 없다지만 늘어난 체중을 두팔이 감당해야하니 저녁만 되면 후끈후끈 거린다. 아빠는 부안에 도착하셨다는구나. 이 무더위에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일이라 무척 힘드실 거야. 거기다 카메라까지 들고, 머릿속엔 작업구상까지 해야하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클지 엄마는 상상이 간다. 아빠예겐 참 중요한 시기란다. 우리 아가도 알고 있겠지만 진주에서의 마음 고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고, 서울 와서도 작업준비가 잘 풀리지 않았잖니. 이번 100일 걷기는 아빠에게 많은 부분 정리를 하게 해줄거라 생각한다. 우리 아가 덕분에 가속도가 붙었으니 우리 모두 아빠를 위해 기도하자.

아빠가 보내온 엽서가 두툼하게 쌓여가는구나. 우리 아가에게도 들려줄테니 들어봐.

이제는 배가 무척 많이 나왔겠지요.

힘들고 지치는 하루 하루이지만 늘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아가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보태고 싶구요.

보슬비가 내리는 아침

당신과 상구와 아가와 함께 산책하는 마음으로 걷습니다.

- 장성에서 -

2002년 8월 28일 (수) 맑고 덥다 - 출산 예정일 -

아가야! 아빠가 오셨구나.

새카맣게 그을리고 그새 수염도 덩수룩하고, 손등엔 상처까지 나서 갖고 말이야. 우리 아가 좋겠다. 엄마는 옥상에 올라와 작은 정원을 보고 있단다. 그늘을 찾아 앉아 보니 꽃들과 나무에 더 가깝게 있게 되었지. 푸른 잎마다 생기가 돌고 작은 꽃들도 저마다 아름답게 피었다. 그 속엔 보이지 않던 벌레들이 바쁘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 산들바람이 나뭇잎을 간지럽히듯 흔들어 놓고 훌쩍 가버린다.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니 참~ 좋다.

아가야! 아빠가 우리 아가의 이름을 '송이' 라고 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엄마는 마음에 든다. 듣기 좋고 부르기도 좋다. 정감이 가고 부드럽고 부를수록 따뜻한 마음이 절로 생기는 듯하다. 아빠가 걸으면서 지은 이름이니 더욱 정이 간다. 왜 '송이' 라고 지었는지 아빠에게 듣도록 하자. 참 예쁜 이름이다. 이제 아빠가 오셨으니 마음놓고 나오너라. 우린 잘 해낼 수 있을거야. 아자!!!!

2002년 9월 3일 (화) 흐리다 - 출산하러 병원에 입원 중 아빠가 쓴 글 -

청량리 성마로 병원에서 이따금 엄마가 아침을 맞는다. 너는 출산예정일을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구나. 아빠는 현재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운동 전 과정을 기록하여 다큐제작을 하고 있단다. 보은지회에 앞서 서울로 왔는데 일주일쯤 자리를 비우고 우리 둘째 송이를 보려고 안달하고 있다. 엄마는 출진계를 맞으며 병실에 있고 아빠는 대기실에서 글을 쓴다. 우리 송이 빨리 보고 싶어진다. 엄마의 진통이 점점 강도가 세져가고 있구나. 보기가 애처로우 정도로 잘 참아내고 있단다. 우리 송이도 어서 힘내거라.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 여성주관을 아무것도 모르고 보내신 여성들에게 -

임남희 · 본회 조직위원

매년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이다. 시사용어 사전에 풀이된 여성주간은 "매년 7월1일~7월 7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는 주간.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정됐으며,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가 여성주간이 되었다. 또한 1999년 7월 1일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도 했다."이라고 설명한다.

그 의미를 한 줄 한 줄 되새겨보자.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자'이다. 여성의 생활이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한다. 그 예로 가전제품, 어린이집, 상품화된 가사의 영역 등을 예를 든다. 그러나 나의 아픔에는 이러한 예시가 더 많은 일과 부담을 주었다면 당신들은 아십니까? 우선 전자렌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밥이 되는 페스트 밥을 일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이 아프면,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던 간에 아침전쟁(?)을 치르고 어린이집에 보낸다. 직장에서도 여성이라서 안 된다는 무시가 너무 싫어 더 열심히 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집안은 폭탄이 터진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가족이 일용할 물건을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정리하지 못하면 한 달에 서너 번 대형 매장에 가서 또 돈으로 때운다.

여성발전이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이 밖으로 나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성이라는 것은 분명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성에게 많은 용기와 희생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는 주간'이다. 여성주관을 맞아 조사된 바로는, 교단에서 남녀교사 36%가 성차별적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고, 여성노동자회는 상반기 여성노동자 상담 중 52%가 모성보호에 관련한 상담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일하는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그만 나와달라고 하거나, 임신상태이전 말건 그 전 상황과 같거나 심지어 더 나쁜 근로환경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산전산후휴가는 성과급에서 제외된다. 여성이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지 한 번 사회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성적인 본능과 가족유지의 본능을 위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가사 일을 하고, 더 잘살기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회학 점수는 D수준이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사람의 재생산이다. 사람의 생산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성'과 '남성'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범국민적 사고는 여성만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에게 모성보호는 배려할 일이 아니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혹하게 집으로 몰아낸다. 그리고 아이 낳고, 키우면 다시 오라고 그 때는 지금의 대우가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당신을 사 용하겠노라고.... 여성이 단세포 짙신벌레가 아니라면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 사회가 단세포 아메바가 아니라면 여성에게 모성보호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성주간을 선포하고 이 주간만이라도 남녀평등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드높이 자고 했을 것이다.

여성으로, 그 중 일하는 여성으로, 그중 기혼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너무 아파 그 아픔조차 무뎠던 당신들께 여성주간에 우리만이라도 서로의 아픔을 알고 보듬는 것이 진정 여성주간의 출발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집안에 먼지가 굴러다니어도, 아무리 아이들이 내 뜻과 상관없이 자라도, 아무리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이므로 당연히 여성의 중요성을 알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범국민적으로 드높일 것임을 밝혀야 서로의 아픔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를 다녀와서 -득과 실-

임정수 · 본회 조직간사

나는 보육교사로 당연히 근무를 했다. 일년 이개월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학업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

그만두며 시원섭섭함이 있었다.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과 좀더 성실하지 못했다는 감정들이 들었다. 좋은 점은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은 안전에 있어 항상 불안하다.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는 막대한 책임감이 교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잘 돌본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잘 돌보아서는 안 되는 정말 현실적으로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그 어떤 다른 이유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안전에 있어서 큰 신경을 쓰며 긴장해서 근무를 했다. 퇴직을 하니 이런 긴장감이 없어졌다는 것이 좋았다.

퇴직을 하며 정한 요건만 채우면 당연히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퇴직금을 받았다.

그런데 퇴직금 액수에 있어 내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났다. 원인은 지금껏 보육교사에게 지급되어 오던 관행인 정립 방식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에 의한 정산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나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방식으로 원에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 입장에서 퇴직금이 적은 적립금 방식의 지급을 했었던 것이다. 원장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구청직원의 비상식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원장과 대화를 하지 못했다. 당초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나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무산되어 당초의 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동부를 찾았다. 그리고 간단히 서류 한 장을 작성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노동부에 간 것에 비해 서류작성은 너무 너무 쉬웠다. 단순히 신청서에 인정사항을 적고 퇴직금을 정확하게 못 받았다고만 기재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며칠 후 연락이 와서 노동부에 찾아갔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있었고 원장도 그 자리에 왔다.

물론 원장선생님의 마음은 진정으로 화가 나 있었다. 원장과 같이 자리에 앉아 근로감독관에 질문에 따라 서류를 만들어갔다.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금대장, 기타 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모든 서류는 원에서 준비를 해왔고 근로감독관은 전문가답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나갔다.

그렇게 질의하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4시간을 노동부에서 보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4시간을 그러는 동안 신경이 곤두서며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원장선생님이 측은해지는 마음까지도 들었다. 그래도 보육환경 개선이란 대의 명분이 나에게 있기에 나를

대로 명분과 당당함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원장과 좋게 마무리를 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나쁘게 헤어지는 것이 마음에 크게 걸렸다. 몇 시간의 지리한 시간 끝에 결론으로 나온 것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는 것과 쉬지 못한 월차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원장은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 서명을 했다.

원장은 그 뒤 나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과 재단에 보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리 단체의 눈치를 보며 오죽 능력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식으로 무능함을 평가받아야만 했다.

나는 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과 과정 중간 중간에 나의 의사 및 나의 사고(보육발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지는 못했으나 그 뒤 찾아가 인사를 하고 어느 정도 인간적인 관계는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눈에는 내가 곱게 보이지 않았다. 아마 어떤 식으로든 교사들에게 압력이 들어온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이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나의 마음을 아는 식당 아주머님 한 분이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다른 교사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 특히 내가 얼마의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참 무서웠다. 그런데 뭐라고 항변할 입장은 못되었다. 그렇게 어린이집의 분위기만 접수하고 어린이집을 나왔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에 가면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정당한(보호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법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간관계가 망가지며 또한 고용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부에 찾아가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담실 Q&A

이 코너는 한국보육교사회로 들어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읍시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Q

고용보험에 꼭 들어가 하나요?

어디서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경력안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어린이집에 원장 이외에 1명이라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또한 경력관리를 위해서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보육사업안내(복지부)에는 '경력증명서 발급 시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이 아닌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첨부하면 경력 인정이 되지만 고용보험 자체가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것! ☆☆

Q

고용보험의 가입 절차는?

A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원장)는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연체료와 가산금이 가중됩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98. 10. 1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므로 '98. 10. 1. 이전에 소규모 시설(근무자 4명 이하)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98년. 10. 1.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 보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며, 법정기한 내에 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보고를 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해야 하나?

A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가입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에 있는 지 알고 싶어요.

A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지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588-1919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사이트 www.molab.go.kr 또는 www.work.go.kr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 직업안전기관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등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노동부 직원이 처리해주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은 얼마나 내나요?

A 고용보험료는 고용주(원장)와 고용인(보육교사)이 월급 총액의 0.5%를 각각 부담합니다. 일년치 일시불이 아닌 매월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재미, 인라인 스케이트

김휘경 · 본회 정보간사

예전에 "롤러 스케이트 또는 롤러브레이드"라 불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인라인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대학생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기 타고 다닙니다.

인라인이 뭐길래? inline은 한 줄로 늘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의 바퀴는 한 줄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Inline skates)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라인은 장비도 여러 가지고 가격대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사려면 15-25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외 보호대(손목, 팔목, 발목)세트 헬멧 등이 필요합니다. 주행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1-2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고 특히 허벅지 부분이 많이 빠지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전신운동으로 운동량이 수영과 같다고 하네요. 안전장치만 잘 착용한다면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한창 인라인스케이트에 열심이신 인천 류지민 선생님과 이야기해봤습니다.

Q 인라인을 타게 된 동기는?

3월 초였어요. 주말이면 호수공원으로 자전거 타러 자주 가는데, 거기서 인라인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호기심에 배우게 됐죠. 화사한 봄도 다가오는데, 색다른(?) 여가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Q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월부터 땀으니 4개월째..

Q 지금 타고 있는 인라인의 종류와 가격대는?

인라인 전문점에서 샀어요.

레저용(바퀴 4개)으로는 15만원 이상부터 있어요. 가방, 보호대까지 다 합하면 20만원선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K2나 휠라, 나이키를 많이 타더라고요. 제겐 로세스인데 스케이트랑 가방, 보호대까지 20만원에 구입했어요.

스피드용(바퀴 5개)은 좀 비싸요. 대부분이 40만원이 넘어가니까...

마트나 인터넷 구매보단 인라인 전문매장을 권해 드리고 싶네요. 가격이 할인되는 건 없지만, 초보한테는 설명을 잘해줘요. 그리고, 기본강습도 가르쳐주고요.

Q 인라인을 타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개인적으로 한강시민공원(여의나루)에서 파란 현강 따라 반포대교까지 쪽 로드를 하면 참 좋아요. 그밖에 여의도공원이나 인천대공원(집이 인천이니깐)도 좋고요, 올림픽공원이나 일산호수공원, 상암동에 있는 평화의 공원에선 아직 못 타봤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더군요.

Q 일주일에 얼마나 타시나요?

⇒ 주말엔 거의 타구요.(친구들과의 만남도 이걸로 잡습니다 ㅋㅋ) 평일엔 밤에 회의 없는 날엔 타러 가요. 요즘은 해가 길어서 저녁에도(밤 7시-10시 사이에)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Q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 짱! 두 달 사이에 4kg 뺐습니다.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 인라인 1시간 타는데 407cal가 소모된다고 나오더군요. 헬스보다 더 운동돼요. 그런데 인라인 타고 나서 먹으면 효과 없어요. 사실 밥 먹고도 1시간 정도 타고 나면 배고프고, 또 갈증도 나는데, 그럴 땐 물을 마셔요.

Q 인라인 스케이트를 처음 타시려는 분께 한마디?

보호대는 꼭! 하고 타세요. 처음에 엄청 넘어지면서 상처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넘어지는 거 무서워하면 인라인 못 타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즐기는 거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현장 정책제안

○ 일시 : 2003년 8월 13일(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한국보육교사사회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이하 보육단체연대회의)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현장 정책제안 토론회를 오는 8월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진행순서

▶ 보육단체연대회의 보고 및 활동방향/ 전해순(서어련회장)

▶ 기본발제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30분) / 박금희(서보련 정책위원)

▶ 현장제안

1. 공공성확보를 위한 정부의 과제(15분)/ 전해순(서어련회장)

2. 공공성확보를 위한 시설의 과제(15분)/ 원명순(서보련회장)

3. 공공성확보를 위한 부모의 과제(15분)/ 황윤옥(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4. 공공성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15분)/ 이윤경(한국보육교사사회 공동대표)

▶ 질의 및 응답(20분)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년도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면 전문적인 서비스와 풍부한 자원의 확보로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보육시설의 연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건강한 아동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이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일정 (금~토 1박 2일)

대전 8.22- 8.23(충남 공주 동학산장)

경기 8.29- 8.30(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 9. 5- 9. 6(부산대 상남국제회관)

인천 9.19- 9.20(북사골문화센터 연수원)

대구 10.10-10.11(장소 미정)

광주 5.30- 5.31(전남 화순 도곡온천관광호텔)

강사진 소개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인주 / 볼런티어21 조직홍보부장

이은애 / 이화여대 성산복지관 이화어린이집 원장, 마포자활후견기관 실장 역임

임남희 / 지역사회학아소연합회 부회장 역임, 현 안산 양지자활후견기관 실장

- 신청장처 : 온라인 신청(<http://icarenet.kdta.or.kr>) ⇨ 접수확인 ⇨ 참가비 입금 ⇨ 접수 완료
- 대 상 : 보육시설 종사자, 지역 복지·보건기관 실무자, 보육·복지담당 공무원, 지역단체 실무자 선착순 30명
- 참가비 : 15,000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151-13-08079-2 황미혜(당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주 회 : 한국보육교사회 (02-2275-8505)
- 후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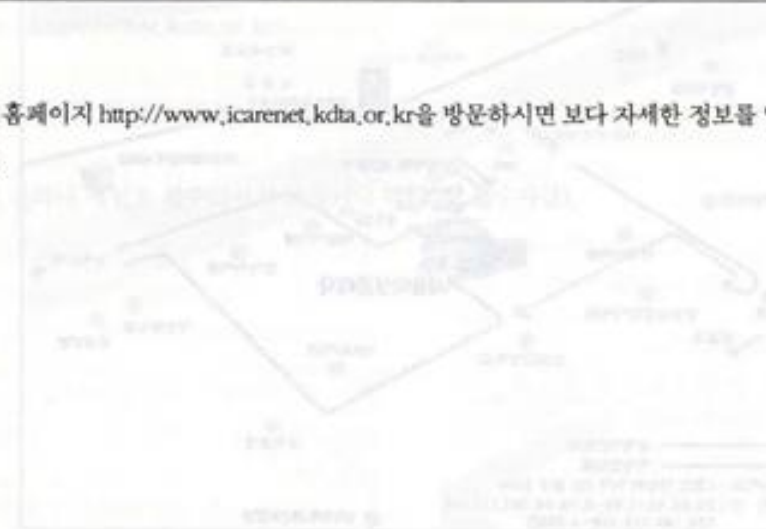
첫째날(금) 일정

14:00-14:30	접수
14:30-15:00	여는 마당
15:00-16:30	강의 1) 보육시설의 복지적 기능 강화, 왜 필요한가? (백선희)
16:30-17:00	휴식
17:00-18:30	강의 2) 보육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원정보 (송인주)
18:30-20:00	저녁식사 및 방 배치
20:00-21:30	토의)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보육시설의 역할과 관계형성 방안
21:30-23:00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둘째날(토) 일정

7:30- 8:00	기상 및 세면
8:00- 9:00	아침식사
9:00-11:00	그룹웍샵 1) 우리 지역 복지망 만들기 (이은애 / 임남희)
11:00-12:00	사례발표) 지역사회와 보육시설 - 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연계 서비스
12:00-13:00	점심식사
13:00-15:30	그룹웍샵 2) 보육시설의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모의훈련 (이은애 / 임남희)
15:30-16:00	닫는 마당

* 본 사업 홈페이지 <http://www.icarenet.kdta.or.kr>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평화를 이야기하자”

평화로운 보육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발표회

- 일 시 : 2003년 8월 23일 2시~5시
- 장 소 : 여성플라자 3층 별난놀이터
- 접수안내 : 02-715-1076-7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선착순 50명)

한국보육교사회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이하 보육단체연대회의)는 2003년 6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평화를 이야기하자” 평화로운 보육을 위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육현장에서 실천한 보육교사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어린이집에서의 평화교육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전통교육강좌

- 교육일시 : 1강, 2강 2003년 9월 6일(토) 오전 9시 30분 - 3시 30분
3강, 4강 2003년 9월 20일(토) 오전 9시 30분 - 3시 30분
- 교육대상 : 보육교사 50명
- 장 소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4층 교육장
- 강의내용 :

9월 6일

- 1강 한지프로젝트/양은희
- 2강 천연염색 프로젝트/강영신

9월 20일

- 3강 전래놀이와 노래/고정미
- 4강 민화프로젝트/고영미

- 교육비 : 4강 10만원(한국보육교사회 회원10-20%할인)-점심식사, 재료비 포함
- 주 회 :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접 수 : 02-2271-1548 담당자: 김희경
- 홈페이지 : <http://www.kdta.or.kr/>

○ 사전입금 : 한빛은행 817-366200-02-001 이윤경

* 사전에 전화나 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접수마감).

제43회 미술치료연수화-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주최 : 한국미술치료학회
 장소 : 서울 사학연금 서울회관 2층 강당
 주제 :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일시 : 2003년 7월 28일(월) ~ 8월 2일(토) / 09:00 ~ 18:00(60시간)
 연수회비 : 300,000원
 참가자격 : 연수회는 미술치료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술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 정회원이어야 함)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후 온라인 송금→신청 완료
 입금계좌 : 대구은행 039-08-039970-1
 예금주 최외선(한국미술치료학회)
 연수내용 : 미술치료개론 / 현상학 인간중심미술치료 / 현존 재분석 / 만다라미술치료 / 미술개론 / 미학 / 한국미술의 이해 / 동양미술의 이해 / 서양미술의 이해 / 정신분석학적 미술치료 / 인지발달적 미술치료 / 교류분석 / 재현미술치료 / 자아심리학적 미술치료 / 시대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물화의 이해 / 대상관계이론 / 색채심리와 미술치료 / 현실치료 / 인지치료 / 경계선성격장애아의 미술치료 / 계층탈트심리학과 미술치료 / 행동주의 미술치료
 문의 : 053-768-0670
 홈페이지 : <http://www.korean-arttherapy.or.kr>

2003년 놀이치료 기초과정 연수

주최 :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일시 : 2003년 08월 11일 ~ 08월 16일
 장소 : 대구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중강당
 내용 : 놀이치료 원리 - 놀이치료의 이론적 배경(8/11~13)

놀이치료 적용 - 놀이치료의 적용과 응용기법(8/14~16)

대상 : 놀이치료 원리 - 아동 상담 및 치료, 교육관련 종사자, 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놀이치료 적용 - 놀이치료 원리를 수강한 자
 참가비 : 놀이치료 원리(10만원) · 적용(10만원) - 다과 및 자료집 포함
 (회원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학부 재학생의 경우 90,000원으로 할인)
 우체국 703272-01-001691
 예금주 :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대구은행 140-07-010831-9 예금주 : 장효성
 신청방법 : 우편이나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참가비는 온라인 입금요망(신청 취소 시 환불되지 않고 다음 연수로 자동 연기신청 됨)
 접수처 : 우) 705-714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3동 2288번지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놀이치료실 내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Fax, 053) 628-8298, E-Mail, korea-children@hanmail.net
 문의전화 : 053-654-8298 playtherapy.or.kr

장애유아통합 보육교사 교육 안내

장애유아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 장애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학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장애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최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장소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109호 (이대 후문 첫 번째 건물)
 일시 : 2003년 8월 12일(화)-8월 14일(목) 3일간 /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대상 : 본 교육에 관심있는 재장애유아 통합관련 시설장 및 교사, 전공관련 학생 등)
 교육비 : 교사 1인당 60,000원(선착순 마감, 교재비 포함, 식사는 제공하지 않음)
 접수방법 : 교육비 입금 후 신청서 사전 접수
 계좌번호 : 조흥은행 595-04-523791 예금주 : 장혜성
 * E-mail로 입금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오니 입금시 반드시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접수 02-3277-3365
 E-mail: seri@ewha.ac.kr)
 문의 : 02-3277-3364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http://home.ewha.ac.kr/~seri/>)
 한국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 (www.k-inclusion.co.kr)
 * 교육일정표와 지원서는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세요

제6회 교재·교구 전시회 작품 공모

우수한 유아 교재, 교구를 발굴하여 유아들에게는 올바른 놀이환경문화를 제공해 주며, 보육현장에서의 연구의욕 고취 및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교류에 기여하고자 작품을 공모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3년 8월 31일(토) ~ 9월 2일(화)
 장소 : 광주여성발전센터 다목적실
 주최 : 광주광역시보육정보센터
 후원 : 광주광역시, (사)광주광역시보육시설연합회
 응모대상 : 광주관내 어린이집·놀이방 교사, 유아교육관련 학생
 작품내용 : 영·유아반 교구 및 실내외 환경구성 등(신체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인지발달 영역, 정서발달 영역, 사회성발달 영역, 환경교육 영역 외 기

타 중 자유 선택)
 문의 : 광주보육정보센터
 Tel. 062-973-7010 Fax. 062-973-7337
<http://www.kjedu.or.kr/>

2003 유아교사를 위한 국악놀이 연수

완성된 작품을 중심으로 교육원리부터 수업 진행안, 작품 연출까지 교육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틀만 연수를 받으면 국악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 : 수원지역 - 7. 29(화) ~ 7. 30(수) 영통소각장내 수원체육문화센터(영통 삼성출몰로 하차 도보 15분)
 서울지역 - 7. 31(목) ~ 8. 1(금) 서울 여성플라자 (대방역 도보 3분)
 인천지역 - 8. 7(목) ~ 8. 8(금) 부평문화원(부평시장역 도보 3분)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중식 1시간)
 (교육 첫날 9:30분부터 접수자 확인합니다.)
 참가비 : 55,000원(교재 포함, 식대 미포함)
 자유선택 : 교재 테이프 3,500원 / 악기(장구, 소고, 한삼) 대여비 2,500원
 참가신청 : 온라인 신청(<http://kukaknori.or.kr>) → 국민은행 (032902-04-018176 예금주 노병갑) 입금 후 확인전화

주관 : 어린이국악놀이연구소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의 : 어린이국악놀이연구소 Tel. 02-6224-1266
 Fax. 02-6280-2924
<http://kukaknori.or.kr> kukak@kukaknori.or.kr
 내용 : 장단(유아장단 / 장구율동 / 장단놀이)
 - 율동(탈춤기분 / 소고율동 / 한삼율동)

- 놀이(소고전놀이놀이 / 전래놀이 강강술래 / 난타놀이 보글보글 짝짝)
- 특강 1(이철수의 전래놀이 : 수원, 서울, 인천)
- 특강 2(임도원의 마임놀이 : 서울)
- 특강 3(해마루의 연극놀이 : 수원, 인천)

아동미술심리치료 여름방학단기특강

다양하고 복잡한 어린이의 그림을 진실되게 읽고 문제행동까지도 고려하여 정서와 인지를 포함한 미술활동으로 교사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치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 8월 1일(금) - 2일(토) 오전 10:00 - 16:00(2일간 총 12시간)
장소 : 방배역 3번 출구 1분거리
특강비 : 110,000원(워크샵 실기 재료비 포함)
준비물 : 스케치북 8절, 크레파스, 4B연필, 지우개
접수방법 : 각 과정 40명 (반계좌 입금순으로 정원 마감함)
계좌번호 : 국민 084-01-0390-039 한국아동미술교육(입금후 확인전화 바람)
접수 : 2003년 6월9일~7월 28일
artedu@artedu.net
http://www.artedu.net
주최 : 한국아동미술교사연수원
문의 : 02-585-3726, 3727

유아를 위한 영양교육

일시 : 2003년 7월 24일 pm6:30~8:00
장소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교육대상 : 구립/민간/가정 보육시설 교사 및 관련학과 학생

교육내용 : 유아기 영양의 특징 및 영양문제, 음식과 관련된 유아기 심리적특징, 유아의 식생활 행동발달, 식사지도, 유아영양교육을 위한 활동
강사 : 김은기(연세대 교육대학원 강사)
교육비 : 회원 5,000원, 비회원 7,000원
입금계좌 : 농협170118-51-006184
예금주 : 신림사회복지관
주최 : 관악구보육정보센터
문의 : 02-851-2834
접수 : 7월 19일(토)까지 전화 및 E-mail신청
홈페이지 : www.gwanakgu.seoul.kr/

제14기 유아마사지 지도자2급(초급) 자격연수교육

본 과정은 영,유아기에 있는 아기들의 건강과 신체발육 및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올바른 영아보육의 방향을 제시할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기간 : 2003년 7월 26일~8월 23일 (매주 토요일과정)
교육시간 : 30시간 (오후2시~8시)
교육비 : 15만원 (자격검정비-5만원 별도), 온라인 사전 등록시 5% 할인
구비서류 : 재학 및 졸업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3*4) 3장
준비사항 : 필기도구 및 편안한 복장, 수건
교육장소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하차
성신여자대학교 남관 202호(Tel: 02-522-9903)
특전 :
① 유아마사지 2급 자격 취득
② 유아마사지 고급과정 수강자격 부여
③ 유아마사지 통합 학술세미나 및 해외 연수, 정 보공유의 회원특전 적용

④ 고아원 자원 봉사등 사회봉사활동 참여
주최 : 대한명생건강마사지협회
문의 : 02-522-9903

동화구연지도사가 되기 위한 초급 여름방학특강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사)동화구연지도사협회의 동화구연지도사 2급시험 대비를 위한 초급, 중급 과정입니다.

일정 : 8월 5일(화)~ 8월 11일(월) 화, 수, 목, 금, 월 3시간씩 16시간 이수
시간 : 오전반 10시~1시 저녁반 7시~10시
장소 : 동화사랑연구소(Tel: 02-463-8014)
참가비 : 150,000원
강사 : 이규원, 동화사랑연구위원
주최 : 동화사랑교육원
문의 : 02-463-8014
ann@donghwasarang.com
홈페이지 : www.donghwasarang.com

중요소식

- 5월 1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예비보육교사 교육강좌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정책"을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예비보육교사 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5월 2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진행된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방안에 대한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9일 보육주체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사)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10일 교육위원회 1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 5월 13일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사무실에서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 연합회와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방과후보육관련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간략하게 내용을 담고 이후 별도법안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5월 15일 여성단체연합 이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관한 건과 호주제 폐지운동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5월 15일 5월 돌봄을 주제로 한 현장연구 5월모임이 있었습니다.
- 5월 16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예비보육교사 교육강좌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정책"을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교육장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예비보육교사 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5월 17일 광주에서 2003년도 한일보육교류 연수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한일보육교류협의회, 한국보육교사회가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19일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윤경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참여단체장들과 여성부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을 면담하고 보육예산 확보 및 보육정책결정과정에 보육단체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 5월 19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갯골어린이집 교사교육 1차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유정은 선생님이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 5월 23일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내부교육-다양한 노조조직 경험 공유하기-3강이 씩씩이 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노동조합의 전망이란 제목으로 황형욱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교육선전국장이 강의하셨습니다.
- 5월 23일 조직위 정책위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 5월 26일 OECD국가 유아 교육과 보호정책에 대한 모니터팀에서 진행한 한국 관련단체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5월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5월 31일 교육위원회 1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하반기 계획검토와 순회토론회 내용검토가 있었습니다.
- 6월 2일 서울시보육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6월 2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보육교사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6월 2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갯골어린이집 교사교육 2차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유정은 선생님이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 6월 3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예비보육교사 교육강좌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정책"을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예비보육교사 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6월 5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국회 행자위, 복지위 의원 면담을 진행하여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보육발전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 6월 5일 보육단체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사)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현장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같이 하고 이후 정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 6월 9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국회 행자위 위원장인 박종우 의원을 면담하고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6월 10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예비보육교사 교육강좌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정책"을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예비보육교사 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6월 11일 사무국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6월 11일 여성재단에서 주최한 심포지움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6월 11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유시민 의원실을 방문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6월 12일 집행위 채팅회의가 있었습니다.
- 6월 13-14일 서울지역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이 숭실대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준비된 이번 교육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6월 14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흰돌복지관어린이집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유정은 선생님이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 6월 17일 푸른경기21에서 진행되는 경기의 제21 과제 중 하나인 경기도 보육정책 세미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보육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 6월 17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서울대어린이집 교사교육 1차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유정은 선생님이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 6월 18일 공동육아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윤경 공동대표가 인증제 도입과 보육교사 조직화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6월 19일 6월 현장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염지숙 선생님이 이끔이로 수고하셨습니다.
- 6월 20일 서울지부 순회토론회에 이강선주 교육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 6월 21일 광주지부 순회토론회에 이강선주 교육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 6월 23일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자리찾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 6월 24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서울대 어린이집 교사교육 2차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유정은 선생님이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 6월 26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주년 기념식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6월 26일 평화관련 보육연대회의에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평화관련 보육연대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가 참석하는 한시적 연대모임입니다.
- 6월 27일 2시 집행위회의가 있었습니다.
- 6월 27일 (사)서울여성의전화와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공동주최한 2003년도 사이버여성의정지기단 교육, '정치, 그리고 우리 지역 바로 보기'에서 황미혜 정책위원이 "지역보육, 제대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강의 하였습니다.
- 6월 27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갯골어린이집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유정은 선생님이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 6월 27일 7시 30분 조직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부별 여름수련회 회원교육을 위한 문건작성을 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6월 28일 운영위회의가 있었습니다.
- 6월 28일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민화 프로젝트 강좌"를 청산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6월 30일 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에서 신입 상근자 교육을 4주에 걸쳐 주1회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공부모임에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 활동" 자료집을 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모임에는 이윤경 공동대표와 신입 임정수 조직담당 간사님과 김희경 정보홍보간사가 함께 합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6월 13-14일 보육사업에 관련된 여러 영역의 인자들이 모여 포괄적 서비스로의 보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6월 20일 서울지부 6월 월모임이 여성평화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돌봄"에 관한 토론회형식으로 진행된 월모임에서는 보육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돌봄'의 철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6월 26일 서울시 보육평가 인증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사를 대표해 서울지부의 이성봉, 이수미, 최종문, 박인혜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6월 27일 서울지부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

- 습니다. 서울지부 6월 활동평가와 7월 사업기조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 6월 30일 서울지부 근로기준법 연구 소모임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현장진단을 통해 관련된 법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교사 스스로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움직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 7월 4일 서울지부 집행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부 활동평가, 여름연수 준비, 8월 수련회 계획, 각 부서활동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7월 5일 전국 조직부장 연석회의가 대전여민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각 지부의 조직사업과 여름수련회 준비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부에서는 김미나 조직부장이 참석했습니다.
- 7월 17일 '아이들의 생명성을 사랑하는 보육교사를 위한 생태여행'을 주제로 서울지부 교육연수가 있습니다.

인천지부

- 5월 12일 사회복지위원회 제 5차 실행위원회에 박은아 지부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인천의 각 단체 모임을 통해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모임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 5월 17일 스승의 날 자축연을 했습니다. '보육교사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주제로 자기발표의 시간도 갖고 오랜만에 얼굴 보여준 휴직교사(손수정, 위준임) 선생님들과 고기도 구워먹고 재미난 수다에...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 6월 21일 회원의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시설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사업과 관련하여 지부장의 설명회가 있었고 뒷풀이로 성격 테스트와 찰흙 빚기로 웃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날 뒷풀이 음식으로 나온 어마어마한 양의 비빔국수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없어졌는데... (인천지부 먹성 너무 끝내주는 거 아니냐?)
- 7월 12일에 인천지부 여름연수 있습니다.
주 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자리찾기
강 사: 이윤경(한국 보육 교사회 공동 대표)
장 소: 인천 북구 도서관 1층 평생교육실 2실
시 간: 2003년 7월12일 토요일 늦은 2시 - 5시
연수비: 1만 2천원
- 8월 30-31일 이틀에 걸쳐 인천지부 여름수련회 있습니다.
7월 12일 회원의 날에 여름수련회 준비위(이경미, 박윤정, 류신정, 권오경)가 꾸려졌습니다. 멋진 수련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런데 아직 한번도 못 만났어요.

경기지부

- 경기지부는 수원여성회와 함께 보육조례 개정을 준비중입니다. 의원발의 형식을 빌리기 때문에 부산지부보다야 개개인이 발로 뛰는 양은 적을 것 같지만... 잘 되어 할텐데! 열심히 해볼랍니다.
- 수원은 '돌봄'으로, 부천은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로 각 지회모임을 가졌습니다. 매달 한번 있는 만남의 시간에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경기지부

회원들의 열성 교육열! 대단하죠!

- 7월 지부 수련회는 멀리 양평 펜션으로 갑니다. 1박 2일요요.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미리 신청하세요. (7월 19-20일)
- 경기지부 운영위가 7월 1일 드디어 채팅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해냈습니다. 종종 할 예정입니다. 타자 치는 속도들이 만만치 않아서(?) 속 터져 죽을 뻔 했지만요.

광주·전남지부

- 5월 9일 미스코리아 5·18요역참배 여인 피켓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성상품화 미인 대회에 518을 이용치 말라'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아시죠?
- 5월 인권상을 공동 추천하였습니다. 저희와 보육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성애원의 구와바라 목사님을 5.18기념재단에서 주최하는 5월인권상 후보에 지역여인과 한국보육교사회와 공동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결과는.. 아쉽게 되었지만 구와바라목사님과 일본보육관계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구요, 저희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응원해주세요!!
- 5월 17일 5월 월례회가 반전평화교육 회원 토론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토론 후, 일본보육관계자들과 식사와 5.18전야제 참가를 함께 했습니다.
- 5.18 23주기 기념식과 국민대회에 참가했구요, 지역여인과 공동으로 '5월 여성제'를 개최했습니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 여성과 아이들에게 평화를!'이라는 내용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과 함께 했구요, 보

육교사회는 추가로 '보육조례제정 시민선전과 요구도 조사' 사업으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 조례제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월까지 4차례의 정기적 논의를 통해 지금은 광주시민요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설문작업과 분석을 마치고 그 내용을 토대로 7,8월엔 연대단체 구성과 조례가안 작성, 10월엔 시민공청회와 선전활동 11월 조례상정 예정 중입니다.
- 6월 21일 오후 4시 중앙 교육부 순회교육 '돌봄'을 주제로 보육교사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 7월 여름연수와 지부 회지 발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힘 북돋워 주세요..

부산지부

-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에 새 일꾼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35세, 하연주 선생님입니다. '튼튼이 어린이집'에서 만 3년 자원봉사를 했고, 부산지부 그림책 소모임에서 그림책〈보경이 파마하는 날〉을 만들었던 바로 그 보경이 엄마입니다. 6월 17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고 있고, 반상근으로 일합니다. 선생님에게 부산지부 회원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3일 보육조례제정 준비모임 1차 실행회의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발의 방식을 채택해서 지난 6월 30일, '부산시 보육조례 제정 수임인단 발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수임인단은 500~600명 정도 꾸리려고 하고, 시민들의 서명은 53,000

명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7월부터는 좀더 본격적이 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 다음 카페에서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운동'을 검색하면 전개되고 있는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부 여름 연수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8월 17일(일요일)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놀이감>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차후 공개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새로운 출발에 박수를

- 서울지부 임정수 선생님이 보육교사회 중앙사무국 조직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내실있고, 활동적인 모습 기대합니다.
- 이경녀 선생님이 썩익이 어린이집에 복귀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현장에서 썩익한 모습 기대합니다.
- 부산에서 활동하셨던 전리라 생이 경기지부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경기지부 회원 모두 모두 열렬 환영중입니다.
- 목포지회 새꿈담는우리어린이집이 새로운 들로 새 집을 준비중입니다. 그야말로 새 출발! 많이 많이 발전하세요!!!

축하합니다

- 광주전남지부 교육부장 김수중 생이 유부녀로 입성! 행복하세요!
- 광주전남지부의 최혜영 생, 김수중 생이 예비엄마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출산을 높히기에 공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지부 교육부장 안미경 선생님의 첫아기 지영이의 돌입니다. 7월 5일 부산지부 회원들과 주위 분들이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영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기대합니다.
- 서울지부 김미선 선생님이 예쁜 아가를 낳으셨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되어 행복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미선 선생님 정말 축하하고요, 아기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요.
- 광주전남지부에서 5월에 생일을 맞은 김세정 생, 박달신생, 6월에 생일이셨던 배미정 생, 이정미 생께 축하인사를 전하시네요. 생일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네 분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환영합니다

- 서주희, 노화경, 민성희 선생님이 교사회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부의 새 바람을 몰고 오실 선생님들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 인천지부 고경애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생동이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담당하신다고 하고요 영아교육과 박물관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민성희 선생님이 서울지부 정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서울지역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에 참가하신 후 가입하신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포괄적 보육 워크숍이 얼마나 좋았는지 민성희 선생님을 보면 아시겠죠? 활동하시면서 함께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엄정해 선생님도 부산지부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열성적인 부산지부의 회원이 되셨으니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

휴직하십니다.

- 수원지회 회원(금주생과 연화생)의 임신과 유산 등으로 맘고생이 많았던 지난 달이었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은 노동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연화생은 출산까지 아직 멀긴 했는데 몸상태가 별로라서 어린이집을 정리하셨습니다. 언제나 경기지부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 김수연 선생님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썩썩이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일하던 모습을 교사회에 집중하고 있는 수연선생님의 왕성한 활동 모습 기대합니다.

옹원해주세요.

- 박부자 생의 늦둥이(?) 출산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출산(!) 미리 응원해주세요.

회비를 내셨습니다

(03년 5월 1일 - 6월 30일 기준입니다.)

cms 출금보고는 4, 5월 출금액 기준입니다)

(서울지부) 5월 완납

(광주전남지부) 5월 완납

(인천지부) 5월 완납

(경기지부) 5월 완납

(부산지부) 3, 4월 완납

(대구지부) 5월 일부

(평생회원)

최순옥 평생회비 16, 17차 10만원, 전경숙 평생회비 일부 50만원

(자료회비)

문승연 3만원, 김대라 3만원, 윤미영 3만원

(회원회비)

서은희 2만원, 조선경 2만원, 하미선 2만원, 김은숙 2만원, 김지혜 1만원, 김지희 2만원, 김호연 4만원, 노수산 2만원, 신선주 2만원, 유정은 6만원, 조선영 2만원, 최루미 2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오윤정 2만원, 백선희 2만원, 오영숙 1만원, 권성춘 4만원, 김경인 2만원, 김동현 2만원, 김은주 1만원, 김정윤 1만원, 오영숙 1만원, 김종원 1만원, 김진명 1만원, 김현순 2만원, 남명자 4만원, 류호선 10만원, 박선희 1만원, 박은아 3만원, 박차리 1만원, 신주영 1만원, 신현미 2만원, 엄소현 1만원, 원명순 2만원, 이주연 1만원, 이지수 2만원, 이현경 4만원, 임태형 2만원, 장성일 2만원, 장해주 2만원, 하운하 2만원, 한만우 2만원, 이순 2만원, 이정미 5만원, 이창미 18만 9천원, 최옥순 오만 6천7백원, 임남희 10만원

(본회 5·6월 활동일지)

5월	1일	교육센터 예비보육교사 교육강좌
	10일	교육위원회 12차 회의
	15일	5월 돌봄 현장연구 5월모임
	16일	교육센터 예비보육교사 교육강좌
	19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워크샵
	23일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내부교육-다양한 노조조직 경험 공유하기- 3강
	23일	조직위 정책위 합동회의
	31일	교육위원회 13차 회의
6월	2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워크샵
	3일	교육센터 예비보육교사 교육강좌
	10일	교육센터 예비보육교사 교육강좌
	12일	집행위 채팅회의
	13-14일	서울지역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14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워크샵
	17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워크샵
	19일	6월 현장연구모임
	20일	서울지부 순회토론회
	21일	광주지부 순회토론회
	23일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자리찾기" 모임
	24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워크샵
	27일	집행위회의
	27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워크샵
	27일	조직위 회의
	28일	운영위회의
	28일	교육센터 "민화 프로젝트 강좌"
	30일	사무국 신입상근자 교육

편지부에서

미국서 살다 잠시 한국에 일 때문에 홀로 와 계신 어떤 분이 얼마전 미국에 있는 두 자녀를 불러오셨어요.

그분의 다섯 살배기 아들이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제 손을 끌고 가면서 "칼게임 하고 싶어, 칼 게임... 형이 칼 게임 안 시켜 줘." 하더군요. 칼게임? 아하- 칼싸움 말이구나...

그런데 그 아이 손에 이끌려 간 곳에선 아이들이 칼 대신 카드를 들고 있더군요.

card game을 전 칼게임이라고 들은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지요....

여름입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종류의 연수와 교육들이 펼쳐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별 다를 게 없어보이는 일상과 아이들인 것 같지만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맘 졸이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당신의 눈에 어제의 그 아이와 오늘의 그 아이가 조금은 다른 것이, 이 아이와 저 아이가 조금은 다른 것이 느껴지는 여름이었으면 합니다.

• 정정합니다.

지난호 현장교육 "평화의 봄시장"의 필자를 김혜은 선생님에서 아이들세상어린이집의 서정남 선생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서정남 선생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 이달 인물탐방기는 최선희 선배님이 쓰실 차례였는데 최근 신장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다음호에 최선희 선배님의 입담을 듣는 것으로 연기합니다. 최선희 선배님, 꼭 건강 되찾으시구요!!!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안전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서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